

# 『동의보감』 편성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Used to Compile *Dongui Bogam*

이 은 립 (Lee, En-Rim)\*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동의보감』 편성의 類別 분류체계 | <참고문헌> |
| 3. 『동의보감』 편성의 綱別 분류체계 |        |

## < 초 록 >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許浚이 저술한 『동의보감』의 類別·綱別 편성 관련 분류체계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보감』 편성의 類別 분류체계는 몸(身體)을 우선으로 하고 病을 그 하위에 두는 醫書의 편성법으로 '內景·外形·雜病·湯液·鍼灸'篇이라는 독창적인 五分法(五篇分類法) 즉 '五篇類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의보감』 '내경·외형·잡병'편의 綱別 분류체계는 '허준의 동의보감 編成觀'에 제시된 11개 핵심 綱群을 골격으로 삼고, 각 篇에서 각각의 핵심 강군을 적당한 위치에 按配하고, 當該 핵심 강군의 前·後 위치에 각각의 해당 附隨 강군들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그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동의보감』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먼저 第①湯液序例綱을 제시하고, 탕액편에 編入할 모든 약재들을 15綱으로 분류한 후, 각 綱 배열의 순서 및 논리는 '생명원천·동물군·식물군·광물군' 성격의 綱群으로 각각 群集·按配함으로써, 16綱 전체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동의보감』의 類別·綱別 분류체계는 매우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동의보감(東醫寶鑑)』, 『동의보감』의 편성, 『동의보감』의 類別·綱別 분류체계, 허준(許浚)

## < ABSTRACT >

This research analyzes how Heo Joon used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subject classes and subclasses to compile *Dongui Bogam* from a bibliographical viewpoin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is confirmed that in compiling the content of *Dongui Bogam*, Heo Joon's major principle was to give body a priority over diseases, and to classify the content into five classes, that is, internal medicine, exterior parts, various diseases, and decocted medicine.

2) In *Dongui Bogam*, in the classes of 'internal medicine, exterior parts, and various diseases' 11 core subclasses are properly framed in each class, and a group of supplementary subclasses are logically and sequentially placed around core subclasses to establish its classification scheme.

3) In the class of 'decocted medicine', all kinds of medicinal raw materials are classified into '15 subclasses' in order of the four groups of 'a source of life, animals, plants, and minerals', and these 4 groups are sequentially placed after the first subclass, that is, '① the sequence of decocted medicine' to establish its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entire 16 subclasses.

In this research, it is evidenced that the classification scheme used to compile *Dongui Bogam*, was very creatively and logically structured to establish the five classes and their 16 subclasses, respectively.

Key words: *Dongui Bogam*(『東醫寶鑑』), medical classification scheme, classification structure of core classes, Heo Joon(許浚)

\*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enrime@hanmail.net)

투고일: 2019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19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7일  
서지학연구, 제79집, 59-8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59>

## 1. 서론

許浚이 저술한 『東醫寶鑑』(25卷 25冊<sup>1)</sup>)은 17세기 이전까지의 역대 한·중 醫書들을 총망라·집대성하고 그 핵심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醫書의 眞髓’로 인정받고 있다.<sup>2)</sup> 현대에 와서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동의보감』이 동양의학사상 불멸의 금자탑으로 그 최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養生論·保養論의 의학적 특징’<sup>3)</sup>을 들 수 있다. 둘째로 病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던 종래의 종합의서와는 달리, 이 책은 ‘신체를 중심으로 하고 병을 그 하위에 두는 방식의 독특한 의서 편성법’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로 중국 명 시대의 종합의서들 및 15세기 후반까지 동아시아 의학 全般을 모은 『醫方類聚』 등을 종합함으로써 당시까지의 의학서들을 종합·회통시킨 점이 주목된다. 넷째로 조선의 대민 의서<sup>4)</sup> 및 鄉藥을 대거 수록하고 鍼灸法 등을 총 정리하여 임상의학의 모범으로써,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학의 표준을 확립하였다<sup>5)</sup>고 볼 수 있다.<sup>6)</sup>

위와 같은 『동의보감』의 우수한 점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항목

- 1) 許浚의 『동의보감』은 1610년에 그 저술이 완료되고, 1613년에 內醫院에서 ‘改鑄甲寅字 木活字’로 첫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所藏本(국보 제319-1호). 總25卷으로 編成되어 ‘① 目錄 2권, ② 內景篇 4권(3~6), ③ 外形篇 4권(7~10), ④ 雜病篇 11권(11~21), ⑤ 湯液篇 3권(22~24), ⑥ 鍼灸篇 1권(25)’의 순서로 구성되고 있다.
- 2) 1596년에 宣祖는 內醫院의 御醫 許浚(1539-1615)에게 ‘여러 醫書(諸方)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들도록 하라(裒聚諸方 輯成一書)’라고 命하였다. 이에 곧바로 醫書의 저술을 위한 기획이 시도되었다.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원칙은 ‘① 修養[養生]을 우선으로 하고, 藥石을 그 다음으로 하라(修養爲先 藥石次之). ② 여러 의서들은 번잡하니 그 요점을 가리는데 힘쓰도록 하라(諸方浩繁 務擇其要)’는 것과 ‘③ 백성들이 쉽게 알도록 하라(使民易知)’는 것이다. 이 사항은 ‘백성들이 간편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의서를 편찬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宣祖는 허준에게 內醫院에 보관된 의서 500권을 내주어 참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許浚은 儒醫 鄭碯, 太醫 楊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 등과 編書局을 설치하고 그 편찬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597년에 丁酉再亂의 勃發로 인하여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허준 개인에 의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1608년 宣祖의 승하 이후에도 許浚은 유배지에서도 이 의서의 편찬 작업은 폐하지 않았다. 1609년에 광해군은 許浚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고, 陽平君의 封號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동의보감』을 계속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허준은 ‘15년’이라는 刻苦의 노력 끝에 마침내, 1610년 8월초에 『동의보감』의 원고를 광해군에게 바치게 되었다. 1613년 11월에는 內醫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장재석, “동의보감 해제,” 『新增補對譯 東醫寶鑑』(서울: 법인문화사, 2017), 11-12.).
- 3) 『동의보감』에서는 ‘養生을 앞세우고 치료술을 그 아래에 종속시키는 養生論的 의학적 특징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은 그 편성에 있어서, 종래 病을 중심으로 책을 엮은 이전의 綜合醫書와 달리, 『동의보감』은 신체를 于先으로 하고 疾病을 그 下位로 종속시킨 의학체계를 택했다. 신체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養生의 원칙’에다, 병이 들었을 때 진단하여 치료하는 의학을 통섭해 낼 수 있었다. 이런 원칙은 고대 중국에서 『황제내경』이 천명한 것이지만, 이 원칙을 지켜 『동의보감』 만큼 의학 전통을 잘 포괄해낸 책은 없었다(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서울: 들녘, 2015), 21-22, 26-27, 366-367.).
- 4) 對民醫書: 胎產, 救急, 傳染病 등을 수록한 醫書.
- 5)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29. 참고.
- 6) 그리하여 김호는 “『동의보감』은 朝鮮 前期 醫書들의 종착역과도 같았다(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서울: 일지사, 2000), 234.)”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선정과 논리의 전개<sup>7)</sup>라 할 수 있다.<sup>8)</sup>

「동의보감」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신동원은 「동의보감」이 동아시아 의학의 典範으로 대접받게 된 원천<sup>9)</sup>에 대하여 「동의보감」이 구축한 신형장부의학의 구체적인 짜임새[構成]와 속살[內容]은 내경<sup>9)</sup>·외형<sup>10)</sup>·잡병<sup>11)</sup>·탕액<sup>12)</sup>·침구<sup>13)</sup>의 5篇, 105門으로 구성된 대범주, 그 아래 속한 2,807개 세목,<sup>14)</sup> 4,747개 처방을 통해 구현된다<sup>15)</sup>라는 점을 指目하였다. 즉 「동의보감」의 구성 및 그 내용은 ‘5편, 105문, 2807세목, 4747처방’으로 편성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편 > 문 > 세목 > 처방<sup>16)</sup>’이라는 種概念의 계급에 의거한 분류체계는, 한의학계의 관점에 의거한

- 
- 7)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김남일은 “「동의보감」의 구성에서 ‘5篇’으로 나열된 순서를 보면, 먼저 ‘內景篇’에서 인체의 內部를 다룬 후 ‘外形篇’에서 外部에 대하여 논하여 内外를 논하고, 内外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들을 ‘雜病篇’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湯液과 鍼灸를 ‘湯液篇’과 ‘鍼灸篇’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의보감」은 그 목차를 통해서 의사는 반드시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원인과 증상을 잘 파악하고 나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20.)”라고 하였다.
- 8) 이것은 다른 어떤 의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의보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上揭註, 同面.).
- 9) 內景: ‘몸속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26개의 주제(綱)로 구성된다(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서울: 미래M&B, 1999), 79.).
- 10) 外形: ‘몸을 구성하는 각 부위’라는 뜻이다. 몸[통] 바깥의 각 부위별 구조와 질병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79.), 이른바 ‘몸통[外形] 부위’, 그리고 몸통의 外部로부터 內部로 이어지는 인체조직(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 즉 ‘몸통의 길과 안쪽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 11) 雜病: ‘感氣·中風·糖尿病 같은 잡다한 질병’을 일컫는다. 內景과 外形이 「동의보감」의 總論이라면, 雜病은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各論에 해당된다(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80.).
- 12) 湯液: ‘약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湯液篇에서는 약초 이외에 물·흙·동물·물고기·금속·곤충에 이르기까지 1,393種의 한약재가 망라되어 있다. 그 중 640種은 鄉藥이다(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80.).
- 13) 鍼灸: 침(鍼)과 뜸(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鍼·灸는 氣가 흐르는 통로인 經絡을 이용한 치료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활용법에서는 氣가 막혀서 병이 생겼을 때 막힌 것을 풀어주는 치료법이 ‘鍼’이며, ‘뜸’은 몸속에 찬 기운이 멎쳐 병이 생겼을 때, 쑥의 熱氣로 찬 기운을 몰아내거나 부족한 기운을 補하여서 치료하는 것이다(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80-81.).
- 14) 細目: 세목을 많이 추출했다 함은 폭넓은 의학지식을 단호하게 결정해 내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세목을 내세운 의서는 보이지 않는다. 각 細目은 ‘병의 원인·진단법·치료법’ 등이 일관된 계통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목차를 무려 2권씩이나 두어 그 세목들을 모두 담았다. 독자는 어느 한 門에 속한 세목을 훑는 것으로 그것을 거느린 門의 내용을 대강 파악할 수 있고, 한데 모인 書目を 일람하면 의학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7.).
- 15)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9.
- 16) 「동의보감」 편성의 分類群의 계급에 대한 명칭은, 許浚은 위 분류계급의 명칭에서, 다만 대분류의 개념으로 ‘篇’이라는 명칭만 그 ‘상위수준’의 분류(大分類) 관점에서 사용하였다. 許浚은 「동의보감」의 편성에 있어서 그 분류계급으로 ‘門’·‘細目’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 처방에서 ‘單方’이라는 용어는 小分類(‘目’ 항목) 개념에서 사용하였고, ‘種’이라는 용어는 탕액편에서 ‘細目’의 개념으로써 약재의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韓醫學에서 ‘門’·‘細目’·‘處方’이라는 명칭 사용은 그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상하계층의 단계를 각각 표현하는 종개념의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위의 ‘篇 > 門 > 細目 > 處方’이라는 개념을 문헌정보학의 분류 관점에서 사례를 들어 예시하면 “內景篇類 > 第②精綱 > 第⑤精宜秘密目 > 第①金鎖思仙丹細目”으로 表記된다.

분류계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생물학의 범용적인 분류체계’<sup>17)</sup>나 ‘문헌정보학적 분류체계’<sup>18)</sup>와는 相異하기 때문에 그 분류체계의 正體性(identity)에 관한 명정한 논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괴리감이 없지 않다.<sup>19)</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sup>20)</sup>의 類別·綱別 편성 관련 분류체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東醫寶鑑目錄』<sup>21)</sup> 및 ‘<東醫寶鑑總目>’<sup>22)</sup>에 記載된 條目들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동의보감』 편성의 독창성 및 탁월성 등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 17) 예컨대, 가장 많고 복잡한 生物群들을 분류하는 생물학 중 식물 分類群의 계급은 ‘界(kingdom) > 門(division) > 綱(class) > 目(order) > 科(family) > 屬(genus) > 種(species)’과 같이 점차적으로 그 하위계급을 이룬다. 실제 사례로 ‘올벚나무’(種)에 대한 분류군의 계급을 역순으로 제시하면, ‘올벚나무種 < 벚나무屬 < 장미目 < 쌍지염식물綱 < 피자식물門 < 植物界’의 분류체계를 이룬다(이유성, 『식물분류학』 (서울: 도서출판 우성, 2002), 31-32. 참고). 동물분류학에서도 위와 같은 ‘7가지(階級)의 種概念 범주(分類體系)’, 즉 ‘界(kingdom) > 門(phylum) > 綱(class) > 目(order) > 科(family) > 屬(genus) > 種(species)’을 사용한다(한국동물분류학회 편저, 『동물분류학』 (서울: 집현사, 2003), 35-36.).
- 18) 문헌정보학에서 ① 古書의 분류체계는 『中經新簿』(317-322) 이래 『隋書經籍志』(641)에서 확립된 ‘四分法(經部·史部·子部·集部로 大別되는 四部分類 아래에 각 類를 배치하는 분류법: 그 분류군의 계급은 ‘部 > 類’의 분류체계)’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② 특정 주제의 목록(佛敎 章疏目錄)에서, 그 분류체계의 수립 원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의 경우에도 “敎藏總錄의 분류체계는 義天의 敎學觀이라 할 수 있는 ‘圓融의 門(華嚴), 終頓의 旨(起身), 始敎의 宗(唯識), 小乘의 說(俱舍)’이라는 순서[를 핵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類似的한 주제의 자료들을 按配하는 방법]에 의하여 편성되었다”(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71, 103, 129. 참조)는 論據에 따라 그 분류체계를 규명한 사례도 있다. ③ 現代書의 분류 중 KDC·DDC 등에서는 十進分類法에 의하여 그 분류군의 계급을 ‘類 > 綱 > 目’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35-93. 159-206. 218-235. 참고). 여기에서 ‘類’는 ‘主類(main class)’의 개념으로, 예컨대 전체 문헌을 ‘1차 구분(10구분)’하는 大分類의 경우이고, ‘綱(division)’은 ‘2차 구분(100구분)’하는 中分類의 경우이며, ‘目(section)’은 ‘3차 구분(1,000구분)’하는 下位分類의 경우를 말한다.
- 19)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한의학계에서는 ‘동의보감’의 편집 특징을 논술하면서, “5篇의 매 편 아래[하위계층]에는 ‘綱’과 ‘目’을 두었다(장재석, “동의보감 해제,” 『新增補對譯 東醫寶鑑』(2017), 19-20.)”라고 하는 등, 韓醫學界에서도 ‘문헌정보학적 분류’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차츰 대두되고 있다.
- 20) 연구대상 『東醫寶鑑』의 原典은,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이 소장하고 있는 ‘청구기호: 한귀古朝68-3’, ‘東醫寶鑑 卷1-25 / 許浚 奉敎撰. - [漢陽]: 內醫院, 1613(光海君 5). '國寶 第319-1號'의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였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동의보감』 상세정보: ① 표제/저자사항: 東醫寶鑑. 卷1-25 / 許浚(朝鮮) 奉敎撰. 허준 [1539-1615]. ② 판사항: 木活字本(內醫院字). ③ 발행사항: [漢城]: 內醫院, 光海君 5(1613). ④ 형태사항: 25卷 25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7.6 x 17.9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6.6 x 22.0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614년에 五臺山司庫에 內賜한 것이다. 1613년 간행 『동의보감』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국보 제319-2호)’·‘서울대학교 규장각본(국보 제319-3호)’도 있음. 그밖에 국내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은 全州藏本, 嶺營改刊本(1814), 完營重刊本 등이 있고, 日本 刊本 및 中國 刊本 등이 多數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에 관한 目錄學 및 主題(體系)書誌學的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서지학적 고찰은 止揚함.
- 21) 上掲註의 原典 『東醫寶鑑』總25卷의 第1·2卷의 目錄에서 ‘5篇 105[綱]’에 해당하는 類綱 부분만을 採錄한 사항을 의미함.
- 22) 註 20)의 ‘總25卷’의 原典 중 第3卷에 해당하는 ‘동의보감 內景篇 卷之一’의 序頭 부분에 記入되어 있는 ‘<東醫寶鑑 總目> 3張’을 의미함.

## 2. 「동의보감」 편성의 類別 분류체계

본 장에서는 <동의보감총목> 및 「동의보감목록」에 記入된 '5篇' 및 그 하위계층(계급)의 구성조목들인 '105[條目]'을 정리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문헌정보학의 분류 관점'에서 그 대강을 살펴보면, 분류의 위계구조 중 상위수준<sup>23)</sup>에 해당하는 '류별 분류체계의 수립'에 관하여 논술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보감」의 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동의보감」에서는 당시까지의 의학 전체의 내용을 '내경편·외형편·잡병편·탕액편·침구편'으로 5대별하여 범주<sup>24)</sup>화시킴으로써, 그 편성의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즉 명 시대의 의서 등 종래의 종합의서들은 병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동의보감」은 이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편성체계인 이른바 '인체를 국소적인 관념에서 바라보지 않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sup>25)</sup>는 점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동의보감」에서는 신체를 우선으로 하여, 의학 전체를 '①몸 안(內景篇), ②몸 겉(外形篇), ③병리와 각종 병증(雜病篇), ④약리와 본초(湯液篇), ⑤침구(鍼灸篇)'의 5篇으로 구분하고, 그 상위수준(大分類: 類別 分類)으로 분류한 것은 당시까지 唯一無二한 醫書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이러한 編制는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다<sup>26)</sup>고 평가할 정도로 독특하고 탁월한 편성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23)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부류포섭관계에 기초하여 계층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범주의 성원이 다양한 계층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화 하는 수준을 '기초수준(basic level)'이라고 한다. 분류에서는 특정수준을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수직으로는 계층수준을 형성하고, 수평으로는 동위개념을 형성한다. 그런데 범주의 여러 수준 가운데 특정 수준에 정보가 집중되고 이 수준에서 지식이 가장 용이하게 조직된다. 이 수준을 '기초수준'이라 하고 대개는 계층수준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를 위계구조로 살펴보면, 기초수준보다 상위계층은 '상위수준'이라 하고, 기초수준보다 하위계층은 '하위수준'이라 칭한다(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학회, 2000), 37-40. 참고). 이에 따라 상위수준은 大分類에 속하는 '類'의 개념이며, 기초수준은 中分類에 속하는 '綱'의 개념이고, 하위수준은 하위분류(小分類)에 속하는 '目'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24) 範疇: 범주는 최고의 類概念으로서, Aristotle은 존재의 최고류를 '실체(substance)·량(quantity)·질(quality)·관계(relation) 등' 열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그는 사람이다'의 경우는 실체범주에 해당되며, '그는 현명하다'는 질의 범주, '그는 나보다 키가 크다'는 관계범주에 속한다(김태수, 「분류의 이해」, 27.).

25)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8.

26)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30.

27) 「동의보감」에서 重點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臨床에서의 높은 활용성'이었다. 이러한 활용성은 질병을 다각적으로 상호 관련시켜 思考할 수 있는 유연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내용구성을 보면, 각각의 내용들이 상호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내용들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內景篇에 담겨 있는 인체 내부의 논리는 인체 외부의 기술하고 있는 外形篇의 내부 논리로 언급되고 있으며, 질병만을 논한 雜病篇의 내용은 內景篇과 外形篇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알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湯液篇과 鍼灸篇도 마찬가지이다. 약물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湯液篇과 침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鍼灸篇은 내경편·외형편·잡병편에 나오는 약물과 침구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가하고 있어서 이들 篇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체계의 독창성과 人體를 자연과 연관시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의학사상

<표 1> <東醫寶鑑總目>·「東醫寶鑑目錄」에 記入된 5篇(大分類) 및 기초수준(中分類)의 분류체계<sup>28)</sup>

東醫寶鑑 序 (3張) 東醫寶鑑 總目 (3張) 東醫寶鑑內景篇卷之一 /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奉教.撰 / 集例 (1張) 歷代醫方 (6張) 身形藏府圖 (1張)
內景篇 1) (內景篇卷之一): ①身形 ②精 ③氣 ④神 2) 內景篇卷之二: ⑤血 ⑥夢 ⑦聲音 ⑧言語 ⑨津液 ⑩痰飲 3) 內景篇卷之三: ⑪五臟六腑 ⑫肝臟 ⑬心臟 ⑭脾臟 ⑮肺臟 ⑯腎臟 ⑰膽腑 ⑱胃腑 ⑲小腸腑 ⑳大腸腑 ㉑膀胱腑 ㉒三焦腑 ㉓胞 ㉔蟲 4) 內景篇卷之四: ㉕小便 ㉖大便
外形篇 1) 外形篇卷之一: ①頭 ②面 ③眼 2) 外形篇卷之二: ④耳 ⑤鼻 ⑥口舌 ⑦牙齒 ⑧咽喉 ⑨頸項 ⑩背 3) 外形篇卷之三: ⑪胸 ⑫乳 ⑬腹 ⑭臍 ⑮腰 ⑯脇 ⑰皮 ⑱肉 ⑲脈 ⑳筋 ㉑骨 4) 外形篇卷之四: ㉒手 ㉓足 ㉔毛髮 ㉕前陰 ㉖後陰
雜病篇 1) 雜病篇卷之一: ①天地運氣 ②審病 ③辨證 ④診脈 ⑤用藥 ⑥吐 ⑦汗 ⑧下 2) 雜病篇卷之二: ⑨風 ⑩寒[傷寒] 3) 雜病篇卷之三: ⑪暑 ⑫濕 ⑬燥 ⑭火 4) 雜病篇卷之四: ⑮內傷 ⑯虛勞 5) 雜病篇卷之五: ⑰霍亂 ⑱嘔吐 ⑲咳嗽 6) 雜病篇卷之六: ㉑積聚 ㉒浮腫 ㉓脹滿 ㉔消渴 ㉕黃疸 7) 雜病篇卷之七: ㉖瘡瘍 ㉗瘟疫 ㉘邪祟 ㉙-1癰疽上 8) 雜病篇卷之八: ㉚-2癰疽下 ㉛諸瘡 9) 雜病篇卷之九: ㉜諸傷 ㉝解毒 ㉞救急 ㉟怪疾 ㊱雜方 10) 雜病篇卷之十: ㊲婦人 11) 雜病篇卷之十一: ㊳小兒
湯液篇 1) 湯液篇卷之一: ①湯液序例 ②水部 ③土部 ④穀部 ⑤人部 ⑥金部 ⑦獸部 2) 湯液篇卷之二: ⑧魚部 ⑨蟲部 ⑩果部 ⑪菜部 ⑫-1草部上 3) 湯液篇卷之三: ⑫-2草部下 ⑬木部 ⑭玉部 ⑮石部 ⑯金部
鍼灸篇 1) 鍼灸篇(一卷): ①鍼灸

은 허준 의학의 독창적 요소이다(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8).

28) <東醫寶鑑總目> 등 목록의 앞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集例·歷代醫方·身形藏府圖’는 醫學的 側面에서는 상당한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 本考는 主題(體系)書誌學的인 관점에서 『동의보감』 편성의 분류체계에 관한 고찰이 그 주된 연구이기 때문에, ‘集例·歷代醫方·身形藏府圖’에 관한 의학적 논술이나 의미의 분석 등은 韓醫學界의 상설 연구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둘째, 「동의보감」의 '5篇'이라는 편제는 '상위수준의 분류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 분류수준의 하위 계층인 '기초수준(中分類: 綱別 分類)의 분류계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내경편에서는 '26개'의 조목으로 분열(fission)<sup>29)</sup>되고 있고, 2) 외형편에서도 '26개'의 조목, 3) 잡병편에서는 '36개'의 조목, 4) 탕액편에서는 '16개'의 조목, 5) 침구편에서는 '1개' 조목으로 각각 분열되어 구성됨으로써, 총 '105개'의 조목이 그 하위시스템으로 전개되는 차별화 과정<sup>30)</sup>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동의보감」 편성의 특징'을 '분류의 일반개념' 및 '문헌정보학에서의 지식분류'에 관한 관점에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分類의 일반개념에서 보면, 「동의보감」의 전체 내용이 '내경편 · 외형편 · 잡병편 · 탕액편 · 침구편'이라는 '5편'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상은, 의학 전체를 5대별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상위수준의 분류계급으로 형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문헌정보학의 지식분류'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이 '5편'은 '범주의 위계구조모형'에서 그 계층수준으로 볼 때에는 大分類(類別 分類)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대분류 편성법은 의학 전체를 '5편'의 대범주로 5구분한 '五分法(五篇分類法)'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의보감」 편성의 상위수준 분류법을 '오분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문헌정보학에서의 전통적인 고서분류법인 「隋書經籍志」(641)<sup>31)</sup> 이래 확립된 四分法(四部分類法)<sup>32)</sup>의 분류체계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허준은 그 당시 문헌분류의 전통적인 분류법이었던 사분법의 분류체계를 응용하여, 「동의보감」에서는 '五分法(五篇分類法)'을 제창하여 '5편류(大分類), 105[綱](中分類)'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29) 分裂: 하나의 학문 영역이 다수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는 단순 형태의 分化로서, 전체 개체가 대등한 상태의 구성요소로 구분되는 과정이다(①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Edition 3 (N.Y.: Asia Publishing House, 1967), 352. ② 김태수, 「분류의 이해」, 3.).

30) 차별화과정: 차별화과정에서는 하위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발전되고, 결과적으로 독립된 하위시스템이 출현하게 된다(김태수, 「분류의 이해」, 2.).

31) 「수서경적지」에서 확립된 四分法은 그 이후 각 史志, 즉 舊唐書 · 新唐書 · 宋史 · 明史의 經籍 또는 藝文志를 비롯한 각종의 史志補撰과 주요 官修目錄(宋代 「崇文總目」, 元代에 修撰된 「宋史 藝文志」) 및 역대의 私家 장서목록 등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① 정필모, 「文獻分類論」, 46-47. ② 김태수, 「분류의 이해」, 106-109.).

32) 四分法(四部分類法)의 분류체계:

① 經部: 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緯緯, 小學.

② 史部: 正史, 古史, 雜史, 霸史, 起居注, 舊事, 職官, 儀注, 刑法, 雜傳, 地理, 系譜, 簿錄.

③ 子部: 儒家, 道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 兵家, 天文, 曆數, 五行, 醫方.

④ 集部: 楚辭, 別集, 總集. / 附道經. / 附佛經.(정필모, 「文獻分類論」, 46.).

33) 왜냐하면, 四分法의 분류체계는 문헌 전체의 상위수준 분류를 '4部'의 대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도 의학문헌 전체의 상위수준 분류를 '5篇'의 대범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申東源이 「동의보감」의 구성내용으로 제시하였던 '5篇, 105門, 2807細目, 4747處方'을 문헌정보학적 분류체계의 관점으로 보면, 「동의보감」 편성의 분류체계는 '5篇類, 105綱, 2807目, 4747細目(處方)'이라는 위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2807目'은 분류의 '개념의 수준'에서는 이른바

따라서 「동의보감」 편성의 류별 분류체계는, 문헌분류의 전통적인 사분법을 응용하여, 몸(身體)을 우선으로 하고 병을 그 하위에 두는 방식인 ‘내경편·외형편·잡병편·탕액편·침구편’이라는 5편의 대범주 체제로 분류함으로써 ‘독창적인 5편류의 분류체계’로 수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 「동의보감」 편성의 綱別 분류체계

「동의보감」의 편성에서 그 상위수준인 대분류(類別 分類)는 ‘내경편·외형편·잡병편·탕액편·침구편’이라는 ‘5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앞의 장(章)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위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의 한 단계 아래인 기초수준(basic level: 中分類; 綱別 分類)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①내경편 26개, ②외형편 26개, ③잡병편 36개, ④탕액편 16개, ⑤침구편 1개’인 도합 ‘105개[條目]<sup>35)</sup>’으로 그 위계구조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 편성의 ‘5편 105[조목]’이라는 구성을 문헌정보학적 분류법인 ‘類 > 綱 > 目’이라는 중개념의 분류체계로 재구성할 때, 위의 ‘105[조목]’은 바로 ‘綱’의 개념(中分類)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 ‘105[조목]’의 각각의 명칭에 ‘綱’이라는 분류용어를 부착하여 그 각각의 綱名으로 지칭하고자 한다.<sup>36)</sup>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동의보감」의 편성에서 ‘105綱의 綱別 분류체계는 각각 어떤 基準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는가?’의 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동의보감」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의 序頭에 제시한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集例(이하 <동의보감 집례>로 약칭함)>에서 각 편의 구성에 관한 핵심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 즉, 허준은

臣[許浚]이 삼가 생각하건대[按], 人體의 구성은 안으로는 五臟과 六腑가 있고, 밖으로는 筋骨·肌肉·血脈·皮膚가 있어서 그 형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精氣神은 또한 臟腑와 百體의 主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道家의 三要<sup>37)</sup>와 佛家의 四大<sup>38)</sup>가 모두 이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黃庭經」에도 內景에 관한 글이 있고, 醫書에도 內外境界之圖가 있습니다. / 道家는 淸靜과 수양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醫家는 약과 침으로 치료의 근본을 삼습니다. 이것은 道家가 그 精髓를 얻은 것이요, 醫家는 그 粗略를 얻은 것입니다. / 지금 이 책에서도 먼저 內景의 精氣神과 臟腑로서 內[景]篇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外形의 頭面·手足·筋脈·骨肉으로서 外[形]篇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五運六氣·四象<sup>39)</sup>·三法<sup>40)</sup>·內傷·外感 등 여러 병의 증상을 채록하여 雜[病]篇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

‘하위수준’에 해당하고, ‘4747세목’은 하위수준의 아래 계층인 ‘최하위수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5) 許浚은 위 ‘105個’ 사항에 대하여서는, ‘5篇’ 즉 ‘內景篇’ 등에서 稱한 ‘篇’이라는 명칭과 같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條目]’이라고 表記하였음.

36) 예컨대, <표 1> 內景篇의 種概念에서 그 첫 번째 조목인 ‘身形’에 대하여 ‘身形綱’이라고 지칭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37) 三要: 精·氣·神.

38) 四大: 地·水·火·風. 사람의 몸은 ‘地·水·火·風’의 4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개념.

(未)으로 탕액과 침구를 붙여 그 변화의 妙를 다하였습니다.<sup>41)</sup> 따라서 환자들이 책을 펴 한번 보게 되면, 병의 虛實·輕重·吉凶과 死生の 징조가 明若水鏡[明若觀火]하게 드러날 것이니, 망령된 치료로 요절케 하는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sup>42)</sup>

라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허준은 「동의보감」의 편성에 있어서 1) 내경편은 ‘精氣神·臟腑’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2) 외형편은 ‘頭面·手足·筋脈·骨肉’에 중점을 두었으며, 3) 잡병편에서는 ‘五運六氣’를 비롯한 ‘四象·三法·內傷·外感’을 근간으로 함으로써, 각 편 of 분류체계를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인용문 후미에서, 4) 탕액편과 5) 침구편에 대하여서는 “말미에는 탕액편과 침구편을 저술하여 그 변화의 妙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라고 한 부분도 주목된다.<sup>43)</sup>

위와 같이 허준이 직접 밝힌 「동의보감」 5편의 구성에 관한 논급 부분은 곧 “허준이 「동의보감」을 撰述하면서 ‘허준 자신의 생각’, 더 정확하게는 ‘자기 연구의 결과를 통한 깨달음’을 드러낸 유일한 대목이다.”<sup>44)</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인용문은 “「동의보감」의 편성에서, 각 편 of 강별 분류체계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허준의 「동의보감」 강별 분류체계의 編成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동의보감」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에서, 5편류의 하위계층(기초수준)에 해당하는 ‘총 105綱’의 배열순서 및 관련성 등을 주목하고, 특히 각 편에서 배열되고 있는 강의 순서(順番)에서 각 綱群의 按配 및 그 배치에 관한 이유와 원리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동의보감」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45)</sup>

39) 四象: 望·聞·問·切.

40) 三法: 吐·汗·下.

41) “臣謹按, 人身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 而精氣神又爲臟腑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釋氏爲四大, 皆爲此也. 黃庭經爲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界之圖. / 道家以清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 今此書, 先以內景精氣神臟腑爲內篇, 次取外境[形], 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 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 列爲雜篇. 未著湯液·鍼灸以盡其變.(許浚, “東醫寶鑑集例,” 「東醫寶鑑」內景篇 卷之一(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本文 第1張.). 이 인용문은 <東醫寶鑑 集例> 本文의 첫 문장에 해당한다.

42)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서울: 법인문화사, 2017), 48-49.

43) 許浚의 내경편·외형편·잡병편 편성에 관한 관점의 근간을 주목하면, ‘탕액편과 침구편을 저술함에 있어서도 필경 허준 나름의 일정한 準則에 의하여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됨.

44)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34-235.

45) 왜냐하면, 이들 綱의 배열 및 순서에는 ‘許浚이 부여한, 그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보감 총목>에서 5편류의 하위계층으로 제시된 각 綱의 순서 및 배열과 관련된 그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 綱의 群集(group)化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동의보감」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에 관한 全貌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3.1 「동의보감」 內景篇의 綱別 분류체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의보감총목> 및 「동의보감목록」 중 「내경편」에 제시된 26 綱의 구성 내용들을 발췌하고, 이들 강과 관련한 권별 구분 및 <동의보감 집례>에 기록된 관련 핵심 강군 및 요소 등의 여러 분석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동의보감 집례>에서는 내경편의 구성에 대하여, “內景의 精氣神과 臟腑로서 內[景]篇을 구성하였습니다”<sup>46)</sup>라 하여, ‘정기신’ 및 ‘장부’ 綱群을 강조하였다. 이 사항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신 강군은 제1권에서 第②精·③氣·④神 綱의 3 綱으로 密接시킨 상태로 배치되고 있다. 장부 강군은 제3권에서 第⑪五臟六腑 綱으로 먼저 按配하고, 그 다음에 五臟은 제⑫肝臟·⑬心臟·⑭脾臟·⑮肺臟·⑯腎臟 綱의 5 綱을 오장 강군으로 밀접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六腑는 제⑰膽腑·⑱胃腑·⑲小腸腑·⑳大腸腑·㉑膀胱腑·㉒三焦腑 綱의 6 綱이 하나의 강군으로 밀접·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의보감」 내경편 총 26 綱 중에서 정기신·장부 관련 강군이 15 綱으로 안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제 <표 2>에 제시된 「동의보감」 내경편 綱別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준은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1단계로, 그가 <동의보감 집례>에서 강조한 ‘정기신’과 ‘장부’ 중에서, 먼저 제②정·③기·④신 綱의 3 綱을 내경편 전체 26 綱의 분류체계 중에서 그 앞부분에 于先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오늘날 韓醫學을 이해하는데 첫머리로 제시되는 ‘精·氣·神’의 기본 개념을 본격적으로 내세워 의학 책을 시작하는 서술방식은 「동의보감」이 그 최초이다.<sup>47)</sup> 그 淵源을 살펴보면, 道家에서는 ‘情·氣·神’<sup>48)</sup>을 인체 생리의 기본단위로 파악하여 그 작용을 각각 설명하고 그 치료법도 첨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精氣神을 책의 첫머리에 배치하는 사례는 「동의보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sup>49)</sup> 무엇보다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에서 제②정·③기·④신 綱을 앞부분에 내세워 강조한 이유는, 情氣神은 ‘인체의 중요 구성요소’이며 ‘생명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의보감」의 ‘저술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1단계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장부’의 총체인 오장육부강을 제⑪오장육부 綱으로 제시하면서, 내경편에 제시된 총 26 綱 중에서 그 전반부 뒷부분의 적당한 위치에 안배함으로써, 이 두 강군을 핵심 축으로 삼아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에 관한 골격으로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6) 脚註 41)의 本文과 註文. 參照.

47)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367.

48) 周知하는 바와 같이, 道家에서는 情氣神을 ‘道家의 三寶’로 매우 중요시 한다.

49)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19. 參照.

50) 또한 許浚은 「동의보감」의 편성에 있어서 가장 論理的이고 合理的인 ‘類 > 綱 > 目’ 개념인 3계층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그 저술의 始終一貫性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동의보감」 內景篇의 綱別 분류체계<sup>51)</sup>

類	綱	권별 구분	집례 제시 핵심 강군	目	‘單方’目 산하 세목: 처방약재수, 침구법 여부’	비 고
內景篇	①身形	卷1	精氣神	32目, 附3目	23. <sup>52)</sup> 神枕法, 灸臍法等	• 신체의 총체적인 관점*㉠, *㉡ • 瓊玉膏: 동의보감 제1처방*㉢
	②精			18目	21. 導引法, 鍼灸法	• 道家的 三寶(三要)*㉣
	③氣			31目	24. 六字氣訣, 鍼灸法	• 인체의 중요 구성요소.*㉤
	④神			21目	23. 鍼灸法	• 생명활동의 기본(血 포함)*㉥
	⑤血	卷2		30目	22. 鍼灸法	• 생명활동의 기본*㉦
	⑥夢			18目	18. 鍼灸法	• 생명활동의 작용*㉧
	⑦聲音			15目	12. 鍼灸法	
	⑧言語			24目	無處方. 鍼灸法	
	⑨津液			29目	25. 鍼灸法	• 생명활동 중의 산물*㉨
	⑩痰飲			22目	23. 鍼灸法	
	⑪五臟六腑	卷3	臟腑	20目	23.	• 오장육부의 총괄
	⑫肝臟		(五臟)	14目	21.	• 情神·氣血·魂魄을 저장*㉩ •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몸속의 중추기관(1)*㉪
	⑬心臟			15目	22.	
	⑭脾臟			14目	24.	
	⑮肺臟			14目	22.	
	⑯腎臟			16目	23.	
	⑰膽腑		(六腑)	11目	5.	• 水穀을 소화시켜 氣를 생산*㉫ •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몸속의 중추기관(2)*㉬
	⑱胃腑			11目	27.	
	⑲小腸腑			8目	9.	
	⑳大腸腑			8目	24.	
	㉑膀胱腑			8目	17.	
	㉒三焦腑			7目	13.	
	㉓胞		24目	41. 鍼灸法	•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몸속의 중추기관(3)*㉭ • 臟腑에 버금가는 중요성*㉮	
	㉔蟲		25目	41. 鍼灸法	• 장부 관련 몸속의 부속물*㉯	
	㉕小便	卷4		24目	48. 鍼灸法	• 인체 내부의 종말 처리물*㉰
	㉖大便			27目	70. 鍼灸法	

51) 비고 부분 참고문헌: \*㉠;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서울: 들녘, 2017), 242. \*㉡;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8-19, 23-25. \*㉢;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翻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7(신증보개정판), 207-208.

52) 「동의보감」 ‘內景篇’類의 하위계층인 ‘身形’綱에서, 다시 그 하위계층으로 각 目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單方’目은 “第㉘單方”目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㉘單方’目的 下位階層에서 다시 여러 개의 細目 部分에 ‘23개의 처방약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23”으로 표기하였다. / 이와 같이 「동의보감」 5편에서는, 각 강의 후미에는 어김없이 ‘단방요법’目이 채택되고, 이 ‘단방’목의 하위계층에는 그 세목으로써의 ‘수많은 처방약제명들’이 제시되어 있음이 그 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난한 백성들도 싸고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한 개의 약물만으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한 것은, 주변 山野 등에 널려 있는 韓藥材의 이용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의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남일,

둘째,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2단계로, 제②~④’강의 정기신 강군 앞에 ‘신체의 총체적인 관점’을 논술한 제①’身形’강이 내경편의 첫 번째(先頭)의 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一’의 序頭 부분에서 <集例>(1張)과 <歷代醫方>(6張) 및 <身形臟腑圖>(1張)가 제시된 후에, 비로소 내경편의 本文인 第①’身形’綱이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형’강을 제1강으로 안배한 것은, 그 直前 張에 제시된 ‘신형장부도’와 密接시켜 이 그림과 연관될 수 있도록 按配함으로써,<sup>53)</sup> 허준 자신의 독자적인 의학사상 및 인간의 개체적 특성을 고려한 독특하고도 새로운 의학체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셋째,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3단계로, 위의 ‘情·氣·神·血’綱群에서 나타나는 ‘생명활동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생명활동의 작용’인 제⑥’夢·⑦’聲音·⑧’言語’綱과, ‘생명활동 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제⑨’津液·⑩’痰飲’강을 연속하여 배치함으로써, 내경편의 제⑥~⑧’강 및 제⑨·⑩’강까지의 분류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제⑥~⑧, ⑨·⑩’강의 두 뭉치 강군을 제②~④, ⑤’강의 ‘정기신, 혈’강군의 바로 다음(뒤)에 隣接하여 배치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제⑤’혈’강의 위치는 더욱 흥미롭다. 왜냐하면, ‘혈’강은 ‘생명활동의 기본’에 속하는 강이기 때문에, 제2권의 선두에 배치함과 동시에, 제1권에 안배된 ‘②~④’의 정기신 강군과 곧바로 직결·밀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생명활동의 기본’인 제⑤’혈’강을 ‘생명활동의 작용’을 나타내는 제⑥~⑧’강군 앞에 배치(前置)함으로써, 제⑤’혈’강이 제⑥~⑩’강을 이끌어 내는 형식의 분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내경편의 제2권을 편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참으로 탁월한 분류체계의 수립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4단계는, 『동의보감』 내경편 제3권에 제시된 ‘장부’에 관한 사항이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준이 <동의보감 집례>에서, “內景의 精氣神과 臟腑로서 內[景]篇을 구성하였습니다.”<sup>55)</sup>라고 한 ‘장부’와 관련한 강군은, 먼저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몸속의 중추기관’<sup>56)</sup>의 총체라 할 수 있는 제⑪’오장육부’강을 그 선두에 배치하고, 장부 중 五臟<sup>57)</sup>에 해당하는 제⑫’간장·⑬’심장·⑭’비장·⑮’폐장·⑯’신장’강은 한의학계에서 관습적으로 지칭하는 순서대로 안배한 후에, 연이어 六腑<sup>58)</sup>에 해당하는 제⑰’담부·⑱’위부·⑲’소장부·⑳’대장부·㉑’방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8.)”고 하는 주장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53) 『東醫寶鑑』 內景篇 第1권에서 第①’身形’綱은 ‘第8張’부터 시작되고, ‘身形臟腑圖’는 그 直前 張인 ‘第7張’에 按配되어 있음.

54) 許浚은 자신의 醫學思想을 ‘自然과 人間’·‘人體와 疾病’·‘삶과 죽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학체계로 엮어 내었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한국을 비롯한] 中國의 春秋戰國時代부터 明나라까지 존재하였던 醫學者들의 相異한 醫學 理論과 處方들을 自身の 見解에 따라 하나의 體系로 構成해 내었다. 이것은 단순히 疾病의 증상에 따라 辨證하여 治療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人間을 中心으로 個體의 特性을 考慮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治療體系이다(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8.).

55) 脚註 41)의 註文과 本文. 참조.

56)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과학』, 242.

57) 韓醫學에서 五臟은 ‘情神·氣血·魂魄’을 저장하는 器官’으로 보고 있다.

광부·②삼초부'강의 강군을 차례대로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분류체계는, 허준이 내경편에서 강조한 '장부'와 관련한 제①오장육부'강을 선두에 안배한 후, 그 뒤에 연속하여 제⑫~⑯'강으로 제시되는 오장의 5綱을 하나의 綱群으로 묶고, 후미에는 제⑰~⑳'강에 제시된 육부의 6綱을 또 하나의 강군으로 포섭하여, 오장 및 육부의 강군들을 순차적으로 인접·배열시킴으로써 장부 관련 12綱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 조직의 제4단계 분류체계 수립의 후미에는, 장부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제⑳胞<sup>59)</sup>강과, 장부 관련 부속물인 제㉑蟲'강을 첨부하여 제3권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4권에서는 '인체 장부 활동의 종말 처리물'이라 할 수 있는 제㉒小便·㉓大便'강까지 별도로 배치(別置)하여 제시함으로써,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의 大尾로 마무리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바로 이와 같은 내경편 강별 분류체계의 수립 방법은 실로 절묘하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준은 제㉔포'강을 오장육부의 전체 강군(⑫간장~㉑삼초부)과 함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몸속의 중추기관 중의 하나'로 봄과 동시에 '胞를 장부에 버금가는 臟器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㉔포'강을 장부인 제⑫~㉑'강의 강군 후미에 밀접시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장부 강군의 끝 부분에는, 장부 속에 寄生하는 기생충과 관련한 제㉕蟲'강을 부속시킴으로써 제3권의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경편의 제4권에서는 위와 같은 정기신 및 장부 관련 강군들에서 '생명활동의 기본과 작용을 완료한 이후에 생성되는 종말 처리물'이라 할 수 있는 제㉖소변·㉗대변'강으로 구분하여, 이 강군을 내경편 말미에서의 大尾 강군으로 배치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실로 논리적이고 순차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동의보감」 내경편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동의보감」 내경편의 제1권에서는, 제②정·③기·④신'강군을 핵심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한 후, 이 강군 앞에 내경편에서 다루어야 할 '인체의 총체적인 관점'인 제①신형'강을 前置시킴으로써, 내경편의 선두에 안배되는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2) 내경편의 제2권에서는, 제1권의 정기신 강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⑤혈'강을 제②정·③기·④신'강군 바로 뒤에 直結함으로써 제1권과의 연계성을 도모한 후, 정기신 강군(생명활동)의 작용과 산물인 제⑥똥·⑦성음·⑧언어'강군과 제⑨진액·⑩담음'강군을 군집시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이 파악된다. 3) 내경편의 제3권에서는 '장부'를 핵심 강군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그 선두 부분에 제①오장육부'강을 안배한 후, 연이어 오장인 제⑫간장·⑬심장·⑭비장·⑮폐장·⑯신장'강을 배치하고, 연속하여 육부인 제⑰담부·⑱위부·⑲소장부·⑳대장부·㉑방광부·㉒삼초부'강들을 차례대로 배열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들 장부(제⑫~㉑강) 강군 뒤에는 장부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제㉔포'강을

58) 韓醫學에서 六腑는 '水穀을 소화시켜 氣를 生産하는 器官'으로 보고 있다.

59) 胞: 月經을 주관하는 子宮을 의미함. 韓醫學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포가 있다고 한다(김주영,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149.).

밀접시키는 절묘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시 장부에 기생하는 제⑳충'강을 첨가함으로써 제3권의 강별 분류체계를 마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내경편의 마지막 권인 제4권에서는 위의 정기신 강군(생명활동)과 장부 강군의 모든 기관에서 활동한 결과의 종말 처리물인 제㉕소변·㉖대변' 강을 내경편의 말미 강군으로 첨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 내경편의 강별 분류체계를 그 핵심이 되는 정기신 강군과 장부 강군을 적당한 간격으로 먼저 안배하고, 그리고 이들 각 핵심 강군의 전·후 위치에 각각의 해당 부수 강군들을 각각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60)</sup>

### 3.2 「동의보감」 외형편의 綱別 분류체계

본 절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동의보감」 외형편의 綱別 내용을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외형편의 강별 분류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준은 <동의보감 집례>에서 외형편과 관련하여 “外形의 ‘頭面·手足·筋脈·骨肉’으로서 外[形]篇을 구성하였습니다”<sup>61)</sup>라고 강조하였다. 이 사항은 ‘외형편은 두면·수족·근맥·골육에 중점을 두어, 이를 그 핵심 강군으로 삼아 편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표 3>에서 이들 핵심 강들이 외형편 전체 강들의 배열 및 그 분류체계의 수립에서 과연 어느 위치에 어떠한 논리로 按配되어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편 강별 분류체계는 제①頭·②面'강부터 ㉕前陰·㉖後陰'강에 이르기까지 총 26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26강을 '신체의 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1)두면부위(①頭~⑩背), 2)몸통의 외형부위(⑪胸~⑬脇), 3)몸통의 겉과 안쪽 부위(⑭皮~⑯骨), 4)몸의 변방부위(⑰手~⑲後陰)'라는 네 범주로 구분된다.<sup>62)</sup>

위와 같은 '신체 외형에 관한 4범주'도 크게 참작하여 '외형편의 강별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허준은 <동의보감 집례>의 외형편에서 첫 번째로 중점을 둔 '頭面'과 관련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강의 배열에서 제①두·②면'강으로 두면부위 강군의 선두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제①·②'강군 뒤에 제③眼·④耳·⑤鼻·⑥口舌·⑦齒牙·⑧咽喉·⑨頸項·⑩背'강인 8綱을 하나의 綱群으로 밀접시킴으로써, '외형편 제1·2권'에서 총 10강으로 두면부위 강군을 형성하여 외형편의 첫 번째 강군의 강별 분류체계로 수립하고 있다.<sup>63)</sup>

60) 위와 같은 「東醫寶鑑」 內景篇의 綱別 分類體系'를 演算式化하여 보면, '第1卷: {①身形+(②精·③氣·④神)}. / 第2卷: [{⑤血+((⑥夢·⑦聲音·⑧言語)+(⑨津液·⑩痰飲))}. / 第3卷: [{⑪五臟六腑+((⑫肝臟·⑬心臟·⑭脾臟·⑮肺臟·⑯腎臟)+(⑰膽腑·⑱胃腑·⑲小腸腑·⑳大腸腑·㉑膀胱腑·㉒三焦腑))+⑳胞]+㉓蟲}. / 第4卷: (㉔小便+㉕大便)'로 나타낼 수 있다.

61) 脚註 41)의 註文 및 本文. 참조.

62)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3.

<표 3> 「동의보감」 外形篇의 綱別 분류체계<sup>64)</sup>

類	綱	권별 구분	집례 제시 핵심 강군	目	‘單方’目的 細目數. 및 鍼灸法 여부	비 고		
外形篇	①頭	卷1	頭·面	33目	26. 鍼灸法	머리*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頭面部位*㉑ (머리와 얼굴, 목 및 척추)</li> <li>• 頭→面→眼, 耳, 鼻→口舌, 齒牙, 咽喉→頸項, 背*㉒</li> </ul>	
	②面			16目	35.			얼굴
	③眼			35目	50. 鍼灸法			눈
	④耳	卷2		15目	20. 鍼灸法	귀		
	⑤鼻			18目	15. 鍼灸法	코		
	⑥口舌			31目	32. 鍼灸法	입, 혀		
	⑦齒牙			28目	27. 鍼灸法	이(치아)		
	⑧咽喉			28目	28. 鍼灸法	목구멍		
	⑨頸項			7目	4. 鍼灸法	목		
	⑩背			12目	4. 鍼灸法	등(등뼈)		
	⑪胸	卷3	肉	29目	38. 鍼灸法	가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통 外形 部位*㉑</li> <li>• 몸통의 前面(上部)에서 背側面(下部)로 이어지는 부위*㉒</li> </ul>	
	⑫乳			16目	20. 鍼灸法	젖		
	⑬腹			18目	14. 鍼灸法	배		
	⑭臍			7目	(無 單方·鍼灸)	배꼽		
	⑮腰			10目	22. 鍼灸法	허리		
	⑯脇		筋·脈	14目	7. 鍼灸法	옆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통의 길과 안쪽 부위*㉑</li> <li>• 몸통의 外部로부터 內部로 이어지는 인체조직*㉒</li> </ul>	
	⑰皮			骨	19目	32. 鍼灸法		피부
	⑱肉				14目	24. 灸法		살덩이
	⑲脈				23目	14. 鍼灸法		맥
	⑳筋			手·足	手·足	15目		15. 鍼灸法
	㉑骨	13目	14. 鍼灸法			뼈		
	㉒手	21目	14. 鍼灸法			팔(손)	• 몸의 변방 부위*㉑	
	㉓足	20目	23. 鍼灸法	다리(발)				
	㉔毛髮	13目	18.	털				
	㉕前陰	28目	37. 鍼灸法	생殖器				
	㉖後陰	21目	33. 鍼灸法	肛門				

‘외형편 제1·2권’의 강별 분류체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제‘⑨頸項·⑩背’강이 제2권의 후미 ‘두면부위의 강군’으로 편입·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⑨경항’강은 ‘머리부위와 몸통부위를

63) 위 頭面部位의 綱群은 그 綱群의 각 綱의 순서 및 배열에 있어서의 論理性은 특히 注目된다. 즉 신체의 머리 부분인 머리(①頭)綱에서 시작하여 얼굴(②面)綱, 그리고 얼굴의 구성요소인 ‘눈(③眼)·귀(④耳)·코(⑤鼻)’綱을 거쳐, ‘⑥口舌’綱 부분에 와서는 ‘입(口) 및 입 속의 혀(舌)’를 함께 다루고, 그리고 입 속의 ‘이(⑦齒牙)’綱, 그 다음에는 ‘목구멍(⑧咽喉)’綱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8綱을 하나의 綱群을 삼고, 여기에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연결하는 ‘목 및 목덜미(⑨頸項)’綱을 按配한 후, 목 부위 內部의 목뼈와 연결되는 ‘등 및 등뼈(척추)(⑩背)’綱을 첨가함으로써, 이른바 頭面部位의 큰 綱群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64) 비고 부분 참고문헌: \*㉑;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3. / \*㉒;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 / \*㉓: 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167-252.

연결하는 목(頸: 앞목. 項: 뒷목)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제'⑩배'강은 몸통부위를 지탱하는 골격을 이루는 '척추(등뼈)와 등(背)'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 두 강은 '몸통부위'에 분류되어도 무방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⑨경항·⑩배'강을 제'①頭'강과 연계하여 두면부위 강군으로 편입·분류함으로써, '외형편 제1·2권'의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한 점은 실로卓見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 내경편 제'①신형'강이 시작되는 그 바로 앞(直前)의 張에 <身形藏府圖>가 제시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두면부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髓海腦(腦髓) 부분이 '玉枕關·轆轤關·尾閭關'<sup>65)</sup>으로 直結되는 상태로 그려짐으로써, 허준이 제'⑨경항·⑩배'강을 두면부위 강군으로 편입시킨 緣由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보감』 외형편 제'①두'강 산하의 제'⑥腦爲髓海'目에서 “腦는 골수(髓)의 바다이므로 모든 골수는 다 뇌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뇌에서부터 아래로는 尾骨(꼬리뼈)에 이르기까지 모두 精髓(뼈의 속에 있는 골수)가 오르내리는 길이다”<sup>66)</sup>라고 하여 제'①頭'강은 제'⑩背'강의 미골까지 직결되어 있음을 허준 자신이 손수 기록(摘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편 제3권의 전반부에는 제'①胸·②乳·③腹·④臍·⑤腰·⑥脇'綱의 6綱이 하나의 강군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강군은 <동의보감 집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 강군의 성격을 살펴보면, '몸통 外形 前面(①胸~④臍)의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몸통의 背側面(⑤腰·⑥脇)으로 이어지는 부위'<sup>67)</sup>의 범주를 나타냄으로써, 이른바 '몸통 외형 부위'<sup>68)</sup> 강군으로 밀집·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 6綱은 외형편 제3권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몸통의 겉과 안쪽 부위'인 제'⑦피·⑧골'강군에 앞서서, 이른바 '몸통 부위 전체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그 前面의 상하부터 후측면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각 강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외형편 '몸통 외형 부위'의 강별 분류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3) 허준이 <동의보감 집례>의 외형편에서 강조한 '手足·筋脈·骨肉'과 관련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근맥·골육'은 제3권의 후반부 중 그 후미 부분에 제'⑧肉·⑨脈·⑩筋·⑪骨'강의 순서로 안배하고, 이 강군 앞에 제'⑦피'강을 前置시킴으로써, 제'(⑦피·⑧육)·(⑨맥·⑩근)·⑪골'강의 순서로 5綱을 하나의 綱群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몸통의 바깥인 피부(⑦皮)에서부터 시작하여 몸통의 안쪽 부위인 살(⑧肉) 및 그 속의 혈맥(⑨脈)·근육(⑩筋)과 몸통의 가장 안쪽 깊숙한 부분에 위치하는 뼈(⑪骨)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몸통의 겉과 안쪽 부위'<sup>69)</sup>를 가리키는 강군으로 밀집·안배시킴으로써, '근맥·골육'과 관련한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허준이 <동의보감 집례> 외형편에서 강조한 '手足'은 '몸[통]의 변방 부위'<sup>70)</sup>를 가리키는 四肢

65) 第'⑨頸項·⑩背'綱에 해당하는 부분.

66)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558.

67)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

68)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3.

69)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

7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3.

를 일컫는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②手·③足'강을 외형편 제4권의 선두 부분에 먼저 안배한 후, 이 강군 바로 뒤에 제④毛髮·⑤前陰·⑥後陰'강을 밀접시킴으로써 '몸[통]의 변방 부위'에 대한 5綱인 제(②수·③족)·④모발·(⑤전음·⑥후음)'강의 '수족' 관련 강군에 대한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요컨대, 「동의보감」 외형편의 편성에서 허준은 <동의보감 집례>에서 “外形의 ‘頭面·手足·筋脈·骨肉’으로서 外[形]篇을 구성하였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이는 신체의 외형적 범주에 따라 1)두면 부위, 2)몸통의 외형부위, 3)몸통의 결과 안쪽 부위, 4)몸통의 변방부위로 4大別하여 그 각각의 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동의보감」 외형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제1차 분류로 ‘두면 부위’ 강군에서는 제①頭·②面'강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 제(③眼·④耳·⑤鼻·⑥口舌·⑦齒牙·⑧咽喉)·(⑨頸項·⑩背)'강의 순서로 밀접·안배시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면서 ‘외형편 제1·2권’을 편성하였다. 제2차 분류의 첫째 단계로, ‘몸통 외형 부위’의 제⑪胸·⑫乳·⑬腹·⑭臍·⑮腰·⑯脇'강의 순서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한 후 이 강군을 ‘제3권의 전반부’에 삽입·안배함으로써, ‘외형편 제3권’에서 몸통의 외형 부위에 관한 강별 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분류의 둘째 단계로, ‘몸통의 결과 안쪽 부위’의 강군에서는, ‘筋脈·骨肉’을 핵심으로 하면서 그 배치 순서를 적당하게 안배하고 여기에 ‘皮’강을 前置시킴으로써, 제(⑰皮·⑱肉)·(⑲脈·⑳筋)·㉑骨'강의 배열 순서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면서 이 강군을 ‘외형편 제3권의 후반부’에 안배하였다. 제3차 분류로 ‘몸의 변방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手足’을 핵심·필두로 하여 제(㉒手·㉓足)·㉔毛髮·(㉕前陰·㉖後陰)'강의 5개 강군의 분류체계를 수립하면서 이를 ‘외형편 제4권’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71)</sup>

### 3.3 「동의보감」 雜病篇의 綱別 분류체계

본 절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동의보감」 잡병편의 강별(綱別) 내용을 <표 4>와 같이 정리하고, ‘잡병편의 강별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허준은 <동의보감 집례>에서 잡병편과 관련하여 “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 등 여러 병의 증상을 채록하고 나열하여 잡병[편]을 편성하였습니다”<sup>72)</sup>라 하였다.

71) 위와 같은 「東醫寶鑑」 外形篇의 綱別 分類體系를 演算式化하면, ‘第1·2卷: {(①頭·②面)·(③眼·④耳·⑤鼻·⑥口舌·⑦齒牙·⑧咽喉)·(⑨頸項·⑩背)}. 第3卷: (⑪胸·⑫乳·⑬腹·⑭臍·⑮腰·⑯脇)+{(⑰皮·⑱肉)·(⑲脈·⑳筋)·㉑骨}. 第4卷: {(㉒手·㉓足)·㉔毛髮·(㉕前陰·㉖後陰)}.’으로 나타낼 수 있다.

72) 脚註 41)의 註文과 本文. 參照.

<표 4> 「東醫寶鑑」雜病篇의 綱別 分類體系<sup>73)</sup>

類	綱	권별 구분	집례 제시 핵심 강군 (綱의 群集)	目	‘單方’目 細目數, 鍼灸 <sup>74)</sup>	비 고		
雜 病 篇	①天地運氣	卷1	<b>五運六氣</b>  <b>四象</b> : 望, 聞, 問, 切 : (診斷)  (用藥)  <b>三法</b> : 吐 · 汗 · 下	33目		人間과 천지기운	• 總論* <sup>㉑</sup> • 診斷 · 治療의 대원칙* <sup>㉒</sup>	
	②審病			17目		병 진찰 법* <sup>㉓</sup> ↓		
	③辨證			49目		질병 파악 법		
	④診脈			25目		脈 진찰 방법		
	⑤用藥			41目		처방 내는 방법		
	⑥吐			14目		구토시켜 치료		
	⑦汗			11目	11, X	땀을 내서 치료		
	⑧下			9目	14, X	설사시켜 병 고침		
	⑨風	卷2	<b>外感</b> <b>六氣</b> :	風	61目	38, O	바람: 만병 근원	• 外感病* <sup>㉑</sup> • 外部的 邪氣* <sup>㉒</sup>
	⑩寒(上)			寒	90目	20, O	寒氣: 찬 기운: 傷寒	
	⑩寒(下)	卷3		暑	16目	5, O	더위: 熱病 원인	
	⑪暑			濕	15目	15, O	濕氣로 인한 병	
	⑫濕			燥	5目	4, O	건조하면 병 생김	
	⑬燥			火	29目	45, O	몸에 熱發生 이유	
	⑭火	卷4	<b>內傷</b>		41目	38, O	속이 傷한 병	• 內傷病* <sup>㉑</sup>  • 당시 흔했던 질병* <sup>㉒</sup>  • 일상 必要 의학적지식 중심* <sup>㉓</sup>
	⑮內傷				29目	36, O	허약時  발생 病	
	⑯虛勞	卷5		(吐瀉)	17目	21, X	吐하면서 설사	
	⑰霍亂			(咳嗽)	12目	30, O	음식물 구토	
	⑱嘔吐	卷6		(積聚, 浮症)	25目	23, O	기침병	
	⑲咳嗽			(積聚, 浮症)	18目	24, O	몸속 발생 혹	
	⑳積聚			(燥濕熱)	15目	20, O	몸이 붓는 병	
	㉑浮腫			(燥濕熱)	14目	14, O	배가 붓는 병	
	㉒脹滿	卷7		(傳染)	17目	40, O	당뇨 종류 치료	
	㉓消渴			(傳染)	13目	30, O	몸 황색 병	
	㉔黃疸	卷8		(神病)	20目	19, O	학질(熱病)	
	㉕瘡瘡			(神病)	13目	29, O	유행성 전염병	
	㉖溫疫	卷9		(皮膚炎)	9目	31, O	미치고 발광 병	
	㉗邪祟			(皮膚炎)	45目	37, X	몸의 증기	
	㉘癰疽(上)	卷10		(應急)	19目	X, X	여러 피부병	
	㉙癰疽(下)			(應急)	9目	X, X	몸에 생긴 상처	
	㉚諸瘡			(應急)	9目	X, X	독을 푸는 법	
	㉛諸傷			(應急)	17目	X, O	응급 처치법	
	㉜解毒	卷11	(怪疾)	27目	X, X	괴이한 질병		
	㉝救急		(雜方)	3目	X, X	여러 민간요법		
	㉞怪疾		(別途 按配)	(婦人)	50目	52, O	임신 출산 질병	妊娠 · 解產 爲主* <sup>㉑</sup>
	㉟雜方		(別途 按配)	(小兒)	92目	70, O	驚風, 소아질병	育兒 · 健康管理爲主* <sup>㉑</sup>
㊱婦人	卷10	(別途 按配)	(婦人)	50目	52, O	임신 출산 질병	妊娠 · 解產 爲主* <sup>㉑</sup>	
㊲小兒	卷11	(別途 按配)	(小兒)	92目	70, O	驚風, 소아질병	育兒 · 健康管理爲主* <sup>㉑</sup>	

73) 비고 부분 참고문헌: \*<sup>㉑</sup>;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3-245. / \*<sup>㉒</sup>;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20. / \*<sup>㉓</sup>; 김주영,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253-414.

74) 單方의 細目數(單方數)는 ‘數字’로 표시하고(無單方: X), 鍼灸法의 與否는 ‘O 또는 X’로 표시.

이러한 강조는 바로 잡병편은 ‘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에 중점을 두어 그 핵심 綱群을 편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표 4>에서 이들 핵심 강군들이 잡병편 전체 강별 분류체계에서 어떤 관점으로 각각의 위치에 按配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병편의 편성은 ‘11권’에 걸쳐 36綱이 전개되고 있다.<sup>75)</sup> 바로 이와 같은 잡병편의 편성에 있어서, <표 4>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卷에 편입된 각 강의 내용 및 강별 성격에 입각하여 그 범주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1) 총론: ‘①天地運氣~⑧下’, 2) 外感: ‘⑨風~⑭火’, 3) 內傷: ‘⑮內傷~⑳黃疸’, 4) 非外感·非內傷: ‘㉑瘡瘍~㉔雜方’,<sup>76)</sup> 5) 婦人·小兒: ‘㉕婦人·㉖소아<sup>77)</sup>’<sup>78)</sup>로 5구분할 수 있다.<sup>79)</sup>

이제 「동의보감」 잡병편의 36綱에 대한 ‘강별 분류체계’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잡병편 제1권에는 第‘①天地運氣·②審病·③辨證·④診脈·⑤用藥·⑥吐·⑦汗·⑧下’綱이 차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8綱(‘①~⑧’)의 綱群은, 雜病篇은 ‘모든 질병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질병을 진단·치료할 수 없다’<sup>80)</sup>는 관점으로 여러 질병에 관하여 총론적으로 서술함으로써, ‘諸疾病의 진단 및 치료의 대원칙’<sup>81)</sup>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1) 第‘①天地運氣’<sup>82)</sup>綱이 제1권의 선두에 배치된 것은, 許浚이 <동의보감 집례> 잡병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제‘①천지운기’강은 ‘하늘과 사람(天·人) 관계의 그릇됨 때문에 병이 생긴다’<sup>83)</sup>고 보는 ‘五運六氣’와 관련한 사항이다.<sup>84)</sup> 따라서 이러한 ‘오운육기’를 핵심 기반으로 하여 제‘①천지운기’강이 잡병편의 선두에 안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①천지운기’강 다음에 第‘(②審病·③辨證·④診脈)·⑤用藥·(⑥吐·⑦汗·⑧下)’綱이 연속하여 전개되었는데, 제‘②審病·③변증·④진맥’<sup>85)</sup>강의 3綱은 ‘四象’<sup>86)</sup>과 관

75) 이와 같은 ‘雜病篇 11卷’의 卷數 구분을 보면, 第‘⑩寒’綱이 제2권과 제3권으로 분산되고 있고, 第‘㉑瘡瘍’綱이 제7권과 제8卷으로 나뉘어져 있다. 雜病篇의 편성에서는 그 綱數가 36個에 이를 뿐만 아니라, 許浚이 ‘<集例> 잡병편’에서 강조한 요소도 ‘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의 5개 사항에 이르기 때문에, 雜病篇의 綱別 分類體系의 수립에 대한 분석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예측된다.

76) 外感과 內傷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질병.

77) 질병의 양상과 치료가 판이하게 달라 일찍부터 전문 영역을 확보한 ‘부인’ 및 ‘소아’ 관련 사항.

78)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4-245.

79) <표 4>의 비교 내용. 參照.

80)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19-20.

81)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4.

82) 天地運氣: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원리이다.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이므로 우주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 따라, 천지변화의 원리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몸을 설명하고 있다(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253.).

83) 上揭註, 同面.

84) 이에 따라 許浚은 五運六氣의 理論에 立脚하여 ‘①天地運氣’綱 內에서 그 下位階層에 ‘33개’目を 전개하면서, ‘第1目: 醫當識天地間運氣(의사는 천지간의 운기를 알아야 한다)’부터 ‘第32目: 六十年客氣旁通圖’ 및 ‘第33目: 運氣之變成疫(운기의 변화는 역병을 일으킨다)’에 이르기까지(許浚 著,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911-936. 참고.) 雜病이 일어나는 原理 등을 총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審病: 病을 진찰하는 방법. 辨證: 질병을 알아내는 방법. 診脈: 脈을 진찰하는 방법.

런된 진단강군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②~④'강군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제⑤'용약'강이 부수적으로 밀착·안배되고 있다. 제⑥'토·⑦'한·⑧'하'강의 3綱은 '三法'<sup>87)</sup>과 관련되는 강군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잡병편 제1권에 제시된 제①'천지운기~⑧'하'강군은 '五運六氣'·'四象'·'三法'과 관련한 강군들의 순차적인 按配, 즉 '오운육기'와 관련된 제①'천지운기'강, '四象'과 관련된 제②'審病~④'診脈'강에 제⑤'用藥'강이 부수적으로 추가되고, 그 다음에 '三法'과 관련된 제⑥'토~⑧'하'강이 차례로 배치됨으로써, 이들 3개 綱群의 連次的 안배에 의하여 그 분류체계가 수립되었다.

(2) 잡병편 제2·3권에는 제⑨'風·⑩'寒·⑪'暑·⑫'濕·⑬'燥·⑭'火'綱의 순서로 6綱이 전개되고 있다.<sup>88)</sup>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강군은 '외부의 邪氣가 우리 몸으로 침범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이른바 外感病을 일컫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외감병 강군은 '六氣'<sup>89)</sup>에 해당하는 강들이 한의학계에서 관습적으로 지칭하는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잡병편 제2·3권에서의 강별 분류체계는 '六氣'·'外感'과 관련한 병들이 제⑨'풍~⑭'화'강의 강군으로 群集된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잡병편 제4~6권에는 제⑮'內傷·⑯'虛勞·⑰'霍亂·⑱'嘔吐·⑲'咳嗽·⑳'積聚·㉑'浮腫·㉒'脹滿·㉓'消渴·㉔'黃疸'강의 10綱이 전개되고 있다.<sup>90)</sup>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강군은 '몸속이 잘못되어서 생긴 질병'<sup>91)</sup>으로 이른바 '內傷'과 관련한 강군이다. 게다가 이들 내상병 강군 중에는 제⑰'곽관~⑲'황달'강의 8綱은 내상병 중 '당시 흔했던 질병들이 제시되고 있다'<sup>92)</sup>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잡병편 제4~6권에서의 강별 분류체계는 '內傷'과 관련한 내상병들을 전개하기 위한 10개 강('⑮'내상~⑲'황달')이 하나의 강군으로 결합되어 편성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4) 잡병편 제7~9권에는 第⑳'痲瘡·㉑'溫疫·㉒'邪祟·㉓'癰疽·㉔'諸瘡·㉕'諸傷·㉖'解毒·㉗'救急·㉘'怪疾·㉙'雜方'綱의 10綱이 하나의 綱群으로 전개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㉕'해학~㉙'잡방'강의 강군은 이른바 '非外感·非內傷(외감과 내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86) 四象: 望(환자를 직접 보고 살피는 법), 聞(아픈 상황을 듣거나 냄새 등을 맡는 방법), 問(여러 상황을 질문하여 보는 법), 切(아픈 곳을 직접 만져보거나 진맥하는 방법)의 診斷.

87) 三法: 吐(구토하게 하여 병을 고치는 방법)·⑦'汗(땀을 내게 하는 방법)·⑧'下(설사하게 하는 방법).

88) 雜病篇 제2권은 '風'綱과 '寒(上)'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風·寒'綱의 下位階層에 전개되어야 할 疾病과 관련한 '目'의 項目數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⑨'風'綱 아래에서는 '中風'을 비롯한 '61개'目이 전개되고 있고, '⑩'寒'綱 아래에는 '傷寒病'目を 비롯한 '91개'目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9) 六氣: 陰陽의 여섯 가지 氣運인 '風·寒·暑·濕·燥·火'를 일컫는다.

90) 雜病篇 제2권은 '風'綱과 '寒(上)'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風·寒'綱의 下位階層에 전개되어야 할 疾病과 관련한 '目'의 項目數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⑨'風'綱 아래에서는 '中風'을 비롯한 '61개'目이 전개되고 있고, 第⑩'寒'綱 아래에는 '傷寒病'目を 비롯한 '91개'目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1)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4.

92)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학』, 20.

않는 질병들의 밀집) 綱群<sup>93)</sup>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강군에서 제‘㉕해학~㉚제창’강의 5강은 ‘비외감·비내상 질병 중에서 당시 흔했던 질병의 집합<sup>94)</sup>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또한 제‘㉓제상~㉔잡방’강의 5綱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학지식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sup>95)</sup>는 특성이 있는 강군으로 편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병편 제10권에는 제‘㉕부인’강이, 제11권에는 제‘㉖소아’강이 각각 배치되어 각기 독립된 권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인’·‘소아’ 관련 질병들은 ‘질병의 양상과 치료가 여느 질병과 판이하게 달라, 일찍부터 전문 영역을 확보한 분야<sup>96)</sup>이기 때문에, 잡병편의 후미에 각각의 단일 강으로 독립시켜 그 영역을 안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로卓見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동의보감」 잡병편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는, 허준이 <동의보감 집례>에서 “오운육기·사상·삼법·내상·외감 등 여러 병의 증상을 채록하고 나열하여 잡병[편]을 편성하였다”고 강조한 바, 이들 5개 강군을 핵심으로 하여 그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 잡병편 제1권에서는 ‘오운육기’에 기반하여 제‘①천지운기’강을 그 선두에 배치하고, 이어서 ‘사상’과 관련한 제‘②審病·③변증·④진맥’의 진단강군을 안배한 후, 이 강군 바로 뒤에는 제‘⑤용약’강을 부수적으로 추가·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三法’과 연관하여 제‘⑥吐·⑦汗·⑧下’강을 밀접시킴으로써, 잡병편 제1권은 ‘五運六氣·四象·三法’과 관련한 8綱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잡병편 제2·3권에서는 ‘外感’과 ‘六氣’를 동시에 핵심으로 하여 제‘⑨풍~⑭화’의 6綱을 하나의 강군으로 편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잡병편 제4~6권에서는 ‘內傷’을 핵심으로 하여 내상병과 관련한 제‘⑮내상~⑳황달’의 10綱을 하나의 강군으로 밀접시킴으로써, 내상 관련 大綱群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잡병편 제7~9권에서는 ‘非外感·非內傷’의 질병’들을 제‘㉕해학~㉔잡방’의 10강으로써 하나의 大綱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강들을 성격별로 細分類하면, ‘전염(㉕瘵瘡·㉖은역)·神病(㉗邪祟)·피부염(㉘옹저·㉙제창)·응급(㉚諸傷·㉛해독·㉜구급)·괴질(㉝괴질)·민간요법(㉞잡방)’의 순서로 안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강군은 질병의 類似한 성격별로 각 강을 서로 密接시키거나 또는 그 종류별로 서로 隣接시키는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잡병편의 제10권 및 제11권에서는 제‘㉕부인’강 및 제‘㉖소아’강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부인’과 ‘소아’는 여타 질병의 양상·치료와는 判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강은 잡병편의 후미에 별도로 독립시켜, 각 권의 단일 강으로 각각 안배한 것은 실로 탁견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잡병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편성법임을 파악할 수 있다.<sup>97)</sup>

93)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5. 참고.

94)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20.

95) 上揭註, 同面.

96)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5.

97) 위와 같은 「東醫寶鑑」 雜病篇의 綱別 分類體系를 演算式化하면, ‘第1卷: [①天地運氣+((②審病·③辨證·

### 3.4 「동의보감」 탕액·침구편의 강별 분류체계

본 절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동의보감」 탕액·침구편의 綱別 내용을 <표 5>와 같이 정리하고,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98)</sup>

첫째, 허준은 <동의보감 집례>에서 탕액편과 침구편에 대하여서는 “말미에는 탕액편과 침구편을 저술하여 그 변화의 妙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末著湯液鍼灸以盡其變)”<sup>99)</sup>라 하였다.

여기에서 許浚은 탕액편의 편성에 관한 핵심 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sup>100)</sup> 그러나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편·외형편·잡병편 편성에 관한 관점의 根幹을 주목하면, ‘탕액편과 침구편을 저술함에 있어서도 필경 허준 나름의 세밀하면서도 一定한 準則에 입각하여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을 것’이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둘째, 탕액편의 편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제1권: 湯液序例·②水部·③土部·④穀部·⑤人部·⑥禽部·⑦獸部’. 제2권: ‘⑧漁部·⑨蟲部·⑩果部·⑪菜部·⑫草部(上)’. 제3권: ‘⑫草部(下)·⑬木部·⑭玉部·⑮石部·⑯金部’라는 16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각 綱의 성격’ 및 유사한 주제들의 綱群別 群集에 관한 특징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第①湯液序例綱에서는 ‘약리 이론’을 비롯하여 ‘약물의 채취와 가공’·‘약물의 처방 원리’ 등<sup>101)</sup> ‘탕액’의 총괄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 탕액편의 문을 여는 ‘序例’이므로, 그 선두 강으로 안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診脈)·⑤用藥)+(⑥吐·⑦汗·⑧下)]. 第2·3卷:(⑨風·⑩寒·⑪暑·⑫濕·⑬燥·⑭火). 第4~6卷: {(⑮內傷·⑯虛勞)+(⑰霍亂·⑱嘔吐·⑲咳嗽·⑳積聚·㉑浮腫·㉒脹滿·㉓消渴·㉔黃疸)}. 第7~9卷: [(㉕痲瘡·㉖溫疫)·{㉗邪祟·(㉘癰疽·㉙諸瘡)}+{(㉚諸傷·㉛解毒·㉜救急)·㉝怪疾·㉞雜方}]. 第10卷: ㉟婦人. 第11卷: ㊱小兒’로 나타낼 수 있다.

98) 鍼灸篇은 單一綱의 形態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本考에서는 더 이상의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동의보감」 鍼灸篇은 單一綱으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目’의 전개에 있어서는, 鍊鍼法(침 만드는 법), 火鍼法(불로 달군 침 놓는 법), 點穴法(침혈을 잡는 법), 製艾法(뜸쑥 만드는 법), 灸法(뜸 뜨는 법), 鍼補瀉法(침을 통해 氣運을 불어 넣거나 빼는 것) 등 무려 ‘90’目に 걸쳐 鍼·灸의 총괄적인 측면을 논술하고 있다. 鍼灸篇의 分量은 비록 1綱 정도에 그치지만, 鍼灸篇이 「동의보감」에서 ‘5大篇’ 중의 하나로 당당하게 편성된 이유는 ‘鍼灸는 藥材와 함께 의학의 兩大 도구’였기 때문이다. 또한 <표 2>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보감」의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의 편성에서 각 綱의 하위계층인 目 부분에서 그 後尾에 제시되어 있는 ‘鍼灸’目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동의보감」에서 다루어지는 鍼灸의 내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5- 247. 참고.)라고 논술하고 있다.

99) 脚註 41)의 註文 및 本文. 참조.

100) <東醫寶鑑 集例>에서는, 巨視的인 관점에서, 그 編成의 骨格이 되는 核心 綱群만을 論及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湯液篇에서는 ‘총 1,403種’의 細目에 달하는 모든 藥材를 총망라하여, 이를 ‘16개 綱’으로 효율적으로 分類하여 均等하게 收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1,403종의 약제에 관한 分類에 있어서 특별한 핵심 綱群을 指摘할 수 없음을 勿論이다. 그리하여 이들 細目은, 극히 微視的인 관점에서, 모든 藥材들의 성질과 효용 등에 관한 細密한 關心事를 摘記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 집례>에서 湯液篇·鍼灸篇에 관해서는 “末尾에는 湯液篇과 鍼灸篇을 저술하여 그 변화의 妙에 精誠을 다하였습니다(末著湯液鍼灸以盡其變)”라고 고만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1)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5.

<표 5> 「동의보감」 湯液·鍼灸篇의 綱別 분류체계<sup>102)</sup>

類	綱	권별 구분	綱의 群集	目	細目(種) <sup>103)</sup>	비고	
湯液篇	①湯液序例	卷1	湯液序例	27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의 氣와 균형을 위한 처방*㉔</li> <li>• 약물 채취 가공, 약물처방 원리, 약 달이고 복용하는 법, 諸藥理 理論 망라.*㉕</li> <li>•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써의 湯液*㉖</li> </ul>	
	②水部		生命源泉		2目	33種 <sup>104)</sup>	'天': 하늘이 처음에 물(數)을 냈기 때문에, '水'를 앞머리(首: 제1순위)로 삼음.*㉗
	③土部				單一目	18種	'地': 흙(土: 地; 땅)이 만물을 기르므로 '土部'가 제2순위, 땅에서 인간을 기르는 곡식이 나오므로 '穀部'는 제3순위.*㉘
	④穀部				單一目	107種	
	⑤人部		動物群		單一目	23種	'人': '天·地·人' 思想에서 '人部'는 제4순위.*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部: 動物群에서는 제1순위</li> <li>• 사람 몸에서 약효가 있는 것*㉚</li> </ul>
	⑥禽部				單一目	107種	• 하늘(天)에 사는 날짐승 우선.*㉛ + 動物群 2순위
	⑦獸部				單一目	236種	• 땅(地)에 사는 들짐승 次善.*㉜ + 動物群 3순위
	⑧漁部			單一目	53種	• 물에 사는 물고기(魚). *㉝ + 動物群 4순위	
	⑨蟲部			單一目	95種	• 가장 底等한 微物.*㉞ + 動物群 5순위.	
	⑩果部	卷2	植物群		單一目	91種	• 인간이 常用하는 과실(果: 植物群 1순위)과 채소(菜: 植物群 2순위)*㉟
	⑪菜部				單一目	122種	
	⑫草部(上)	卷3	鍼物群		單一目	上: 91種 下: 188種	• 藥草: 植物群 3순위, 藥草 279種 • 藥木: 植物群 4순위, 藥木 156種 • '玉部'綱: '單一'目. 單一目 산하 전개 細目數: 단 4種에 不過 그림에도 독립 綱(범주) 설치는 특별함*㊱ • 鍼物의 귀한 정도에 따라 '玉·石·金'으로 배열*㊲
	⑬草部(下)				單一目	156種	
	⑭木部				單一目	4種	
	⑮玉部				單一目	55種	
	⑯石部				單一目	33種	
⑰金部							
針灸篇	①鍼·灸(뜸)	(1卷)	(單一綱)	90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鍊鍼法, 火鍼法, 點穴法, 製艾法, 灸法, 鍼補瀉法 등*㊳</li> <li>• 單獨篇 편성 이유: 鍼灸는 藥材와 함께 의학의 兩大 도구였기 때문*㊴</li> <li>• 내경편, 의형편, 잠병편 각 綱의 後尾에 '鍼灸'目이 수록되어 있음*㊵</li> </ul>	

102) 비고 부분 참고문헌: \*㉔;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5-247. / \*㉕;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 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20. / \*㉖; 김주영,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417-512.

103) 「東醫寶鑑」 湯液篇의 原典에는 '水部'綱의 下位階層인 '單一'目 아래의 細目으로 전개되는 '細目(種)數'에 대하여, “凡三十三種(모두 33種[細目]이다)”라 하여, 許浚은 '細目'을 '種'이라 記入하고 있다. 이는 許浚 나름의 細目까지에 대한 명확한 分類體系의 개념이 있었다는 傍證이기도 하다.

104) 水部~金部 湯液 總 細目數(種數): 1403種. 이 種數는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翻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17), 1817-2318.)에 제시된 湯液篇 掲載 湯液種數의 누적된 一連番號에 의한 數值이다.

2) 제②수부·③토부·④곡부'강의 3綱은 '생명원천'과 관련한 綱群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강군에서 '②수부'가 '③토부·④곡부'보다 먼저 안배된 이유는, 허준 자신이 『동의보감』에서 “하늘이 처음 물(水)을 냈기(生) 때문에 水部를 첫머리(首)에 두었다”<sup>105)</sup>라고 직접 記入하고 있을 정도로, 허준은 제②수부·③토부<sup>106)</sup>·④곡부'강의 배열순서에 특히 留意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제④곡부'강에서는 '토부와 곡부와의 관계' 및 이 강군(제②~④'강) 다음에는 제⑤인부'강이 隨伴될 것임을 예고하는 문장을 摘記하고 있음<sup>107)</sup>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군에서, 허준이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허준 나름의 일정한 준칙에 입각하였음이 입증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명원천 강군(제②~④'강)의 분류체계를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인 '天·地·人'의 思想에 의해서 해석하면, 제②수부'강은 '天'에 해당하고 제③토부·④곡부'강은 '地'에 해당하며, 이 강군 다음의 동물군 강군에서 첫 번째의 강으로 제시되는 제⑤인부'강은 '人'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생명원천 강군과 동물군 강군이 인접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별 분류체계의 수립은 '탕액편 편성의 탁월성 및 논리성'을 입증해 주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제⑤인부·⑥禽部·⑦獸部·⑧漁部·⑨蟲部'강의 5綱은 이른바 動物群으로 분류·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동물군 綱群에서는 '天·地·人' 사상 중 '人'에 해당하는 '사람(제⑤인부'강)'을 선두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하늘(天)에 사는 날짐승(제⑥禽部'강), 땅(地)에 사는 짐승(제⑦獸部'강), 물(水)에 사는 물고기(제⑧魚部'강), 그리고 미물인 벌레(제⑨蟲部'강)'의 순서로 그 순차적인 배열 및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108)</sup> 따라서 이 강군의 분류체계는 '고등한 사람(人)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단계적인 계층구조로 내려가서 저등한 미물까지 제시되는(⑤인部→⑥禽部→⑦獸部→⑧漁部→⑨蟲部) 체계적인 배열순서의 강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 배열순서의 논리성 또한 탁월하다고 평가된다.

4) 제⑩果部·⑪菜部·⑫草部·⑬木部'강의 4綱은 植物群으로 분류·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실제, 許浚은 '水部'의 서두에서 '水部'의 湯液은 “모두 33種이다(凡三十三種)”(許浚 著,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1817.)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水部의 細目 末尾에는 “六天氣”가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 六天氣는 이른바 '湯 또는 水'가 아니기 때문에, 許浚은 그 計算에서 제외한 듯하다. 그러나 위의 현대 對譯本에서는 第34'番으로 連續番號를 부여하고, '土部'의 細目에서는 第35'番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 105) 許浚, '水部,' "湯液篇,"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1817. “天一生水. 故以水爲首.”
- 106) 許浚은 '土部'綱의 배치 순서에 대해서도, “흙(土)은 만물의 어머니이므로, 土部를 두 번째에 두었다(土爲萬物之母, 故以土次之(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土部,' "湯液篇,"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17), 1824).”라고 하여, '水部' 다음에 '土部'를 配置한 이유를 明記하고 있다.
- 107) 許浚은 第④穀部'綱을 第③土部'綱 다음에 두면서, 동시에 第⑤인部'綱의 앞에 배치한 이유와 관련하여, “天地間에 사람(人)의 生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곡식(穀) 뿐이다. 이것은 '흙의 덕(土德)'을 갖추고 中和의 氣를 얻었기 때문에 맛이 담박하면서 달고(淡甘), 성질이 화평하여 크게 補하여 주면서도 배설이 잘 되므로 오랫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 점이 사람에게 크게 이로운 까닭이다: 天地間, 養人性命者, 唯穀耳. 備土之德, 得氣中和, 故其味淡甘而性和平, 大補而滲泄, 乃可久食無厭, 是大有功於人者也(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土部,' "湯液篇,"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1829).”라고 明記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 108)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6.

다. 이 강군에서는 ‘사람이 상용하는 과일(果實: 제⑩과부’강)과 채소(제⑪채부’강)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藥草(제⑫초부’강)와 藥木(제⑬목부’강)을 차례로 배치’하고 있는 분류체계의 특징을 보인다.

5) 제⑭玉部·⑮石部·⑯金部’강의 3綱은 鑛物群의 강군으로 군집되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⑭옥부’강의 하위계층인 ‘단일’目에서, 그 산하에 전개되는 세목은 단지 ‘4개 細目(種)’<sup>109)</sup>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부’강을 독립적인 범주로 편성한 것은, 「동의보감」이 物의 독립성 위주의 범주를 철저히 지켰음을 뜻한다.<sup>110)</sup>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점은, 허준이 「동의보감」 탕액편을 편성하면서 그 강별 분류체계의 수립에 철저함을 기하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동의보감」 탕액편 편성의 강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먼저 제①탕액서례’강을 선두에 배치하여 ‘약물학의 이론’을 다루면서 탕액편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모든 本草(藥材)들을 총집결시키면서 이들을 ‘15綱’으로 분류하고, 아울러 각 강의 傘下에서 ‘1400여 種(細目)’의 약제’들을 편성하였다. 2)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약제가 망라된 ‘15개 강’에서 제②수부·③토부·④곡부’강을 생명원천 강군으로 보고, 이 강군을 제①탕액서례’강 다음에 안배함으로써 이른바 제1강군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배열순서에 관한 논리는, 동양철학의 만물 구성의 요소인 ‘天·地·人’思想 중 ‘天(②水部)·地(③土部·④穀部)’에 의거하였다. 3) 그 다음에는 생물과 관련하여 동물군 강군인 제⑤人部·⑥禽部·⑦獸部·⑧漁部·⑨蟲部’강인 5강을 서로 밀접시킴으로써 이를 제2강군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배열의 순서에 관한 논리는, 위의 ‘천·지·인’사상 중 ‘人’에 해당하는 제⑤人部’강을 제2강군의 필두에 놓고, 그리고 ‘하늘 날짐승(天: ⑥禽部), 땅 짐승(地: ⑦獸部), 물고기(水: ⑧漁部), 미물 벌레(⑨蟲部)’의 개념으로 그 순차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배열순서의 논리성 또한 탁월하다. 4) 탕액편의 제3강군에서는 식물군 강군인 제⑩果部·⑪菜部·⑫草部·⑬木部’강인 4강을 밀접시키고 있다. 그 배열순서의 논리는, 인간이 常用하는 果菜(⑩果部·⑪菜部)를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에 本草(⑫草部·⑬木部)를 안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탕액편의 후미 강군에는 제⑭玉部·⑮石部·⑯金部’강을 마련하여 이른바 광물군 강군을 형성시킴으로써 탕액편의 제4강군으로 안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동의보감」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모든 약제들을 ‘15綱’으로 분류하고 제①탕액서례’강을 선두에 배치한 후, ‘15강’의 배열순서의 논리는 ‘생명원천(②~④)·동물군(⑤~⑨)·식물군(⑩~⑬)·광물군(⑭~⑯)’강의 강군으로 각각 군집하고, 이 4개 강군을 순차적으로 안배함으로써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sup>111)</sup>

109) ‘玉屑’, ‘頗黎’, ‘珊瑚’, ‘珍珠’(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2284-2285).

11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246.

111) 위와 같은 ‘湯液篇의 綱別 분류체계를 演算式化하면, ‘①湯液序例 + [(②水部·③土部·④穀部)+(⑤人部·⑥禽部·⑦獸部·⑧漁部·⑨蟲部)+(⑩果部·⑪菜部)·(⑫草部·⑬木部)]+(⑭玉部·⑮石部·⑯金部)’로 나타낼 수 있다.

#### 4. 결 론

許浚의 『東醫寶鑑』 25권 25冊은 17세기 이전까지의 동아시아의 종합의서들을 총망라·집대성하고 그 핵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아시아 醫書의 眞髓’로 認知되었다. 『동의보감』은 ‘①養生論·保養論의 의학적 특징, ②病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던 종래의 종합의서와는 달리, ‘身體’를 于先으로 하고 ‘病’을 그 하위에 두는 방식의 독특한 의서 편성법, ③조선의 대민 의서와 鄉藥을 대거 수록하고, 鍼灸法 등을 총 정리하여 임상의학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학의 표준을 확립하였다’고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은 『동의보감』의 탁월성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저술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항목 선정과 논리의 전개에 있음<sup>112)</sup>을 특히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보감』 편성의 분류체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考究하고자 하였다. 이제 본문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보감』 편성의 類別 분류체계는, 古書分類의 四分法을 응용하여, 신체를 于先으로 중심으로 하고 病을 그 하위에 두는 방식인 ‘內景篇·外形篇·雜病篇·湯液篇·鍼灸篇’이라는 5편의 대범주 체제로 분류함으로써, 독창적인 5篇類의 분류체제로 수립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東醫寶鑑』 5篇類의 각 篇에서 그 하위계층으로 전개되는 綱別 분류체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허준은 <동의보감 集例>에서, “먼저 內景의 ‘精氣神’과 ‘臟腑’로서 內[景]篇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外形의 ‘頭面·手足·筋脈·骨肉’으로서 外[形]篇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 등 여러 병의 증상을 채록하여 雜[病]篇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湯液’과 ‘鍼灸’를 붙여 그 변화(變)의 妙를 다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을 ‘허준의 『동의보감』 編成觀’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허준의 관점에 입각하여 『동의보감』 내경편·외형편·잡병편·탕액편에 관한 강별 분류체계의 수립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동의보감』 내경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허준은 <동의보감 集례>에서 “내경의 精氣神과 臟腑로서 內[景]篇을 구성하였다”고 강조한 바, 제1권에서는 제②정·③기·④신 綱群을 핵심 강군으로 하여 그 앞부분에 按配한 후, 이 강군 앞에는 내경편에서 다루어야 할 ‘인체의 총체적인 관점’인 제①身形 綱을 선두 부분에 前置시킴으로써, 내경편 제1권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2) 내경편의 제2권에서는, 제1권의 정기신 강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⑤血 綱을 제②정~④신 강군에 직결하여 비치함으로써 제1권과의 연계성을 圖謀하고, 동시에 ‘생명활동의 기본’인 제②정·③기·④신·⑤혈 강을 유기적으로 밀집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제②정~⑤혈 강군에 입각한 ‘생명활

112)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20.

동의 작용'인 제⑥夢·⑦聲音·⑧言語'강군과, 역시 제②정~⑤혈'강군에 입각한 '생명활동의 산물'인 제⑨津液·⑩痰飲'강을 차례로 隣接하여 안배함으로써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하였다. 3) 내경편 제3권에서는 '臟腑'를 핵심 골격으로 삼으면서, 우선 그 권두 부분에 제⑪五臟六腑'강을 배치한 후, 연이어 五臟인 제⑫肝臟·⑬心臟·⑭脾臟·⑮肺臟·⑯腎臟'綱을 하나의 강군으로 하여 제⑪오장육부'강에 밀접시키고, 연속하여 六腑인 제⑰膽腑·⑱胃腑·⑲小腸腑·⑳大腸腑·㉑膀胱腑·㉒三焦腑'綱을 또 하나 강군으로 묶어, 이 두 강군을 차례로 안배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이들 장부 강군(⑫~⑯, ⑰~㉒)의 바로 뒤에는 장부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제⑳胞'綱을 밀접시키는 절묘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시 장부에 기생하는 제㉓蟲'강을 첨가함으로써, 제3권의 강별 분류체계를 논리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내경편의 후미권인 제4권에서는, 위의 정기신 강군과 장부 강군의 모든 기관에서 활동한 결과의 종말 처리물인 대소변에 관한 사항을 제㉔小便·㉕大便'강으로 첨부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 내경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그 핵심이 되는 정기신 강군과 장부 강군을 적당한 간격으로 1차적으로 안배하고, 이들 각 핵심 강군의 전·후 위치에 각각의 해당 부수 강군들을 각각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

(2) 「동의보감」 외형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허준은 “외형의 ‘두면·수족·근맥·골육’으로서 외[形]편을 구성하였다”라고 강조한 바, 이는 신체를 그 외형적 범주에 따라 1) 두면부위, 2) 몸통의 외형부위, 3) 몸통의 겉과 안쪽 부위, 4) 몸통의 변방부위'로 4대별할 수 있음도 함께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동의보감」 외형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먼저 두면 강군과 관련하여 제①두·②면'강을 핵심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두면 강군과 직결되는 제③眼·④耳·⑤鼻·⑥口舌·⑦齒牙·⑧咽喉·⑨頸項·⑩背'綱의 순서로 밀접·안배시킴으로써 외형편 제1·2권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몸통 외형부위'에 해당하는 제⑪胸·⑫乳·⑬腹·⑭臍·⑮腰·⑯脇'綱의 순서로 강군을 형성하여 '제3권의 前半部'에 안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몸통의 겉과 안쪽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근맥·골육'강군을 핵심으로 하면서 그 배치 순서를 적당하게 조정하고 여기에 '皮'강을 前置시킴으로써, 그 분류체계를 제⑰皮·⑱肉·⑲脈·⑳筋·㉑骨'강의 배열 순서로 완성시킴으로써, 이 강군을 '외형편 제3권의 후반부'에 안배하였다. 그리하여 외형편 제3권에서는 '몸통부위 전체'에 관한 강별 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몸의 변방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手足'강군을 핵심으로 하고 몸의 변방 부위와 관련되는 강들을 정리하여 제㉒手·㉓足·㉔毛髮·㉕前陰·㉖後陰'강의 5綱을 하나의 綱群으로 삼아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외형편 제4권'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3) 「동의보감」 잡병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허준이 <동의보감 집례>에서 “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 등 여러 병의 증상을 체록하고 나열하여 잡병[篇]을 편성하였다”고 강조한 바, 이들 5개 사항을 핵심으로 하여 그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1) 잡병편 제1권에서는, 먼저 '오운육기'에 기반하여 제①天地運氣'綱을 그 핵심·선두에 배치하고, 이어서

‘四象’과 관련한 제②審病·③변증·④진맥의 진단강군을 안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진단 결과에 따르는 처방 약에 관한 제⑤용약강을 부수적으로 첨가·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三法’과 연관하여 제⑥吐·⑦汗·⑧下’綱을 밀접시킴으로써 잡병편 제1권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잡병편 제2·3권에서는, ‘外感’과 ‘六氣’를 동시에 핵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제⑨風·⑩寒·⑪暑·⑫濕·⑬燥·⑭火’綱의 6綱을 하나의 綱群으로 편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잡병편 제4~6권에서는, ‘內傷’을 핵심 골격으로 하여 內傷病과 관련한 제⑮내상·⑯虛勞·⑰霍亂·⑱嘔吐·⑲咳嗽·⑳積聚·㉑浮腫·㉒脹滿·㉓消渴·㉔黃疸’綱의 10綱을 하나의 강군으로 밀접시킴으로써, 內傷 관련 大綱群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4) 잡병편 제7~9권에서는, ‘비외감·비내상의 질병’들을 제㉕痲瘡·㉖溫疫·㉗邪祟·㉘癰疽·㉙諸瘡·㉚諸傷·㉛解毒·㉜救急·㉝怪疾·㉞雜方’綱의 10綱을 하나의 대강군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 강군을 성격별로 細分類하여, ‘전염(㉞해학·㉟은역)·神病(㊱사수)·피부염(㊲옹저·㊳제창)·응급(㊴제상·㊵해독·㊶구급)·괴질(㊷괴질)·민간요법(㊸잡방)’이라는 특징의 순서 및 차례로 안배한 분류체계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질병의 類似한 성격별로 각 綱을 서로 密接시키거나 또는 그 종류별로 서로 隣接시키는 綱別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판단되었다. 5) 잡병편의 제10·11권에서는 제㉟부인’강 및 제㊱소아’강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부인’과 ‘소아’는 여타 질병의 양상·치료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강은 잡병편의 후미에 別途의 卷으로 각각 독립시켜, 각 권의 단일 강 형식으로 제㉟부인’강과 제㊱소아’강을 각 권으로 안배한 것은 실로 卓見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잡병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편성법임을 파악하였다.

(4) 『동의보감』 탕액편 편성의 綱別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고 분석해 볼 수 있었다. 1) 먼저 제①湯液序例’綱을 선두에 배치하여 ‘약물학의 이론’ 등을 다루면서 탕액편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모든 本草(藥材)들을 총집결시키면서 이들을 15綱으로 분류하고, 아울러 각 강의 傘下에 ‘1,400餘種(細目)의 약재’들을 편성하였다. 2)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약재가 망라된 15綱에서 제②水部·③土部·④穀部’綱을 생명원천 綱群의 개념으로 보아, 이 강군을 제①탕액서례’강 다음에 안배함으로써 이른바 제1강군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 배열순서에 관한 논리는, 동양철학의 만물 구성의 요소인 ‘天·地·人’思想 중 ‘天(②수부)·地(③토부·④곡부)’에 의거하였다. 3) 그 다음에는 생물과 관련하여 동물군 강군인 제⑤人部·⑥禽部·⑦獸部·⑧漁部·⑨蟲部’綱인 5강을 서로 밀접시킴으로써 이를 제2강군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 배열의 순서에 관한 논리는, ‘天·地·人’ 사상 중 ‘人’에 해당하는 제⑤인부’강을 제2강군의 필두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날짐승(天: ⑥禽部), 땅짐승(地: ⑦獸部), 물고기(水: ⑧漁部), 벌레(⑨蟲部)’의 순서에 입각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배열순서의 논리성 또한 탁월하다. 4) 탕액편의 제3강군에서는 식물군 강군인 제⑩果部·⑪菜部·⑫草部·⑬木部’綱인 4강을 밀접시키고 있다. 그 배열순서의 논리는, 인간이 常用하는 과채(⑩果部·⑪菜部)를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본초(⑫草部·⑬木部)를 안배·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5) 탕액편의 후미에는 광물군 강군인 제⑭玉部·⑮石部·⑯金部'강을 제4강군으로 안배함으로써, 탕액편의 전체 강별 분류체계는 제①탕액서례'강 + (생명원천·동물군·식물군·광물군)강군의 배열 順次에 의거하여 그 분류체계의 수립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동의보감」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제①탕액서례'강을 선두에 배치한 후 '天·地·人'思想에 입각하여 제②水部~④穀部'강의 생명원천 강군 및 第⑤人部'綱을 먼저 안배하고, 제⑤인부'강을 매개체로 하여 동물군 강군(제⑤人部~⑨蟲部'綱)과 식물군 강군(第⑩果部~⑬木部'綱) 및 광물군 강군(제⑭玉部~⑯金部'綱)의 순서로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분류체계를 완성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1) 「동의보감」 편성의 類別 분류체계는, 신체를 우선으로 하고 병을 그 하위에 두는 독창적 의서의 편성으로서, '內景·外形·雜病·湯液·鍼灸'篇이라는 독창적인 5篇類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하였다. 2) 「동의보감」 '내경·외형·잡병'편의 綱別 분류체계는, '허준의 동의보감 編成觀'에 제시된 11개의 핵심 綱群을 골격으로 삼고, 각 篇 내에서 각각의 핵심강군이 적당한 위치에 안배되고, 當該 핵심강군의 前·後 위치에 각각의 해당 附隨 강군들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그 강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 3) 「동의보감」 탕액편의 강별 분류체계는, 모든 약재들을 15綱으로 분류하고, 각 강의 배열순서 논리는 '생명원천·동물군·식물군·광물군' 성격의 綱群으로 각각 群集한 후, 이 4개 강군을 제①湯液序例'강 다음에 순차적으로 안배함으로써, 16綱 전체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동의보감」의 類別·綱別 분류체계는 매우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立證하였다.

## <참고문헌>

- 김남일.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5-67.
- 김남일 外.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김주형.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의 비밀』. 서울: 미래M&B, 1999.
- 김태수.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 김 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서울: 들녘, 2015.
- 이유성. 『식물분류학』. 서울: 도서출판 우성, 2002.
- 장재식. “동의보감 해제.”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7. 11-20.

- 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 許浚 奉教撰. 「東醫寶鑑」卷1-25. [漢陽]: 內醫院, 1613(光海君 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디지털자료].
-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7.
- 한국동물학분류학회 편저. 「동물분류학」. 서울: 집현사, 2003.
-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Edition 3. N.Y.: Asia Publishing House, 196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eo, Joon. *Dongui Bogam*. Volumes 1-25. [Hanyang]: Naeuiwon, 1613 (Gwanghaegun 5). National Library of Korea Holdings [Digital Resources]
- Heo, Joon. *Dongui Munhon Yongusil*, tr. 2017. *Sinjeungbodaeyok Dongui Bogam*. Seoul: Bopin Munhwasa.
- Jang, Jae-sok. 2017. "An Annotaton to Dongui Bogam." *Sinjeungbodaeyok Dongui Bogam* (pp. 11-20). Seoul: Bopin Munhwasa.
- Jung, Pil-mo. 2005. *The Classification Theory of Literature*. Seoul: Hanguk Haksul Jungbo.
- Kim, Du-jong. 1981. *A History of Medical Science in Korea*. Seoul: Tamgudang.
- Kim, Ho. 2000. *A Study of Heo Joon's Dongui Bogam*. Seoul: Iljisa.
- Kim, Ju-hyung. 1999. *A Mystery of Heo Joon's Dongui Bogam, Volume 25*. Seoul: Mirae M&B.
- Kim, Nam-il, et al. 2016. *The Knowledge Structure of Dongui Bogam and East-Asian Medical Science*.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Nam-il. 2016. "A Research on the Knowledge Structure of Dongui Bogam." In: *The Knowledge Structure of Dongui Bogam and East-Asian Medical Science* (pp. 15-67).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Sung-soo. 1982. *A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Tae-soo. 2000. *Understanding of Classification*. Seoul: Munheon Jeongbo Cheori Yeonguhoe.
- Shin, Dong-won. 2015. *Dongui Bogam and A History of East-Asian Medical Sciences*. Seoul: Deulneok.
- The Korean Society of Systematic Zoology. Ed. 2003. *Dongmul Bunryuhak*. Seoul: Jiphyunsa.
- Yi, Yu-seong. 2002. *Singmul Bunryuhak*. Seoul: Doseo Chulpan Usung.